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팩스 아시안 차별 동영상, 한인들 분노

아시아기자협회(AAJA) 팩스뉴스 비난 사과요구
LA 한인단체 팩스뉴스에 사과 및 동영상 삭제 요구
보스톤 한인단체는 아직까지 뚜렷한 행동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팩스뉴스 디오라일리팩터(The O'Reilly Factor)가 아시안들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방영해 한인사회를 비롯한 아시안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팩스뉴스는 보수 논객 빌 오라일리가 진행하는 디오라일리팩터에서 10월 3일 소속 리포터 워터스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토론 이후 중국인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뉴욕의 차이나 타운을 방문해 만든 동영상을 방영했다. 이 쇼는 팩스뉴스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중의 하나다.

진행자 빌 오라일리는 대선토론에서 차이가 무려 12번이나 대부분 부정적으로 트럼프에 의해 거론되었다며 워터스의 코너인 "워터스월드" 를 소개했다. 약 5분간에 달하는 이 비디오는 일부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과 태권도장

, 발마사지 샵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 장면과 영화 차이나타운, 가라데키드의 장면을 섞어 편집했다.

이 같은 동영상은 영상에 등장하는 중국 남성들을 바보처럼 묘사하고 아시안을 상투

화하는 등 아시안 자체에 대한 백인의 경멸적 시선이 민낯으로 드러내고 있다.

비디오는 처음 두명의 여성에게 "안녕 인사할 때 절을 해야 하나?" 라고 물으면서 시작된다. 두명의 남 >>2면으로 계속



약 5분간에 달하는 이 비디오는 일부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중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할로윈 앞두고 광대 복장 공격 공포감 확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광대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광대(Clow)공격' 이 미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총이나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거나 행인들을 뒤쫓으며 겁을 주는 모방범죄도 소셜네트워크(SNS)를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앤도버 소재 메리맥 칼리지(Merrimack College)에서 광대복장의 괴한이 소총을 들고 캠퍼스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동이 일었다. 목격자인 로매노 씨는 "모니칸 홀(기숙사)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모두 도망쳤고 그 뒤에 경찰들이 들어와 모든 방을 수사했다" 고 말했다. 추후 이 같은 신고는 실제적으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한국행 항공권

보스톤출발
비수기출발
디트로이트경유

\$998~부터

아시아행, 유럽행, 미국내선 항공권/호텔/크루즈 예약
고국권/일본투어/미서부권/미동부권/여형자모집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www.iace-korea.com
info@iace-korea.com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Financial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aenajung@ownnewengland.com
www.berkshirehathawa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초등까지

FDart 학문광채 센터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LA 한인단체들 팩스뉴스 사과요구

▶▶1면에 이어서

성에게 힐러리와 트럼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액센트가 담긴 영어로 답하자 밑에 영어자막을 달기도 했다.

그는 나이든 중국 여성에게 “트럼프가 차이나를 성토했는데 어떤 기분이나?” 고 물었으며 영어를 못하는 여성은 멍하니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고령의 남성에게는 “올해가 용의 해인가 아닌 토끼 해인가” 라고 물으며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모습을 비쳤다.

또 젊은 여성에게는 “모든 것은 중국에서 만드나? 중국에서 차이나스 푸드는 그냥 푸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한 젊은 여성이 트럼프가 싫어서 힐러리에 투표할 것이라는 말을 하자 그는 “그래서 중국이 계속 우리를 이용하도록 말인가?” 라고 의견을 넣기도 했다.

이 같은 팩스의 비디오를 두고 아시아어메리칸 언론인연합(AAJA)은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 며 팩스 티비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는 인종에 근거해 소수민족그룹을 육보이고 대상화하는 것을 정말 피해야 한다. 슬프게도 팩스 뉴스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좀더 존경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다루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한 아시아 TV 앵커는 “적어도 방송이란

신뢰있는 언론이라면 이 같은 비디오를 그대로 노출해서는 안됐다” 며 아시아를 폄하하고 인종차별적인 묘사를 보여준 팩스뉴스를 비난했다.

11일 LA 한인회와 한미연합회 LA,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KCAL) 등 14개 한인 단체들은 한인회관에서 아시아인 조롱 프로그램 방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사와 프로그램 책임자의 공개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타커뮤니티 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항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아직 보스턴 한인회 등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팩스뉴스에 대한 비난 성명 및 사과요구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워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이 “정치적 유머인” 이라고 묘사하고 아시아인들을 분노케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인터뷰가 가벼운 조크 정도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다고 밝혔다.

워터스와 오라일리는 그러나 이날의 인터뷰가 아시아인들의 반발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오라일리는 “우리는 좀 항의의 서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그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이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부분이 미국의 정치상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등 정치인들이 6일 맨하탄 팩스방송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인 조롱 방송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영상 말미에서 오라일리와 워터스는 이 인종차별적 코너를 “악의 없는 장난”이라고 치부했지만, 논란이 될 것을 인지했는지 “항의 편지가 좀 올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을 잘 인지하고 있어 놀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워터스는 한편 “중국인들은 아주 정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냥 피하거나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며 웃었다. 오라일리는 “그들은 인내심이 있다” 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UCLA 아시아어메리칸학 르네 타지마 페냐 교수는 이 비디오야 말로 미국내

에서 아시아인 아메리칸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오래되고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중국과 중국인들을 조롱하고 뒤로 칭찬한다. 이 같은 아시아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치대 진학 준비생 위한 워크샵 열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치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치의대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등을 안내하는 워크샵이 개최된다.

덴티스트포휴머니티(Dentists for Humanity, 이하 D4H)는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케임브리지 소재 인만스트리트 126번지(126 Inman St, Cambridge)에서 치대 준비생을 위한 프리덴탈(Pre-Dental) 워크샵을 개최한다.

보스톤대학(BU), 텡스대학(Tufts Univ.), 하버드대학(Harvard Univ.)

의 치대생들과 보스톤 지역의 치과 전문의들이 참여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 워크샵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워크샵을 통해 치대 과정을 미리 엿볼 수 있으며 치대 지원과정, 인터뷰 요령, 입학시험(DAT)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치대에 관심 있는 치대 준비생이나 포스트백(post-baccalaureate) 과정 중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크샵 참가 신청은 D4H 웹사이트(<http://www.dentistsforhumanity.org>)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샵의 참가비는 \$100이며 행사의 모든 수익

금은 D4H가 참여하는 아이티 클리닉 후원 등 다양한 국내외 봉사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덴티스트포휴머니티는 칠드런스 호스피탈(Children's Hospital) 소속 김수우 교수(하버드 치의대)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보스톤 지역 치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126 Inman St, Cambridge MA 02139.

hsb@bostonkorea.com



치대를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치의대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등을 안내하는 워크샵이 개최된다

제 5 회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초대합니다



등록: www.kcsBoston.org (\$100 pp)
문의: 781-367-5993; info@kcsBoston.org
미술품 Silent Auction, 재즈 공연, Raffle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5회 모금 만찬

10월 22일(토) 웰슬리 컬리지 클럽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2년 말에 설립되어 만 4년 동안 활동해 온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후원자들과 함께 연례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웰슬리 소재 웰슬리 컬리지 클럽(Wellesley College Club, 727 Washington St., Wellesley, MA)에서 열리는 연례모금만찬에서는 후원자들과 함께 올 한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년 간 예술협회는 매년 한국 전통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보스톤 무대에 올려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연례 미술 전시회와 클래식 음악 콘서트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모금 만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후원을 위한 미술품 경매(silent auction)도 진행한다. 한인 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협회의 활동을 후원하는 미국인 작가들의 작품이 기증되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연례 모금 만찬 참가비는 1인당 \$100이며 한국식 애피타이저가 포함된 양식 저녁식사와 정유정, 석다연, 황슬기 씨가 참여하는 재즈 트리 오 공연이 펼쳐진다.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www.kcsboston.org에서 등록할 수 있다. (문의: 781-367-5993)

bostonkorean@hotmail.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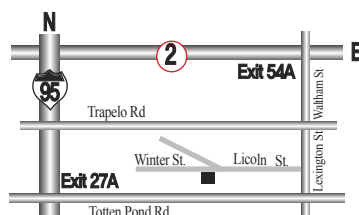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한반도 정세 관련 보스턴총영사관 플래처 스쿨 공동 세미나

한반도 전문가 “대북 제재와 대화 함께 가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텡스 플래처 스쿨에 모인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로 강력한 제재나 아니면 대화나 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모든 수단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스턴총영사관과 텡스대 플래처 스쿨이 공동으로 10월 6일 플래처 스쿨 캐봇빌딩 702호에서 개최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는 텡스대 이성윤 교수를 비롯, 제임스 월시 MIT안보 선임연구원, 신성호 서울대 교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엄성준 총영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5차 북한 핵실험이 보여주듯 북한의 가중되는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와 차기 미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조인을 당부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이성윤 플래처 스쿨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국제사회는 금융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월시 MIT 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1960년대 미국이 소련에 중국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제안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어떤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할 문제” 라고 밝혔다.

월시 선임연구원은 “이런 문제는 양측을 불안하게 하고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 북한의 봉기나 남한이 집착하는 선제공격, 김정은 암살, 특별 핵저 작업 등이 대두되고 있지만 김정은이 아주 갑작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월시 연구원은 “미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을 계속 추적하고



이번 세미나에는 텡스대 이성윤 교수(오른쪽)를 비롯, 제임스 월시 MIT안보선임연구원(왼쪽), 신성호 서울대 교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 및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압박해야 하며, 중국 정부와 사전 조율을 거쳐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자국 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토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일 양국을 넘어 미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가는 도중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차기 미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억제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충실히 방어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상황을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펴보고 현재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을 화해 협력의 길로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려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렌드스토어” 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 면역력 개선 / 통맥경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미회복 / 간기능 개선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 상당)
추가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Walmart Burlington에 판매 중입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모두들 다들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엄성준 총영사 안보 강연 나선다

민주평통 주최, 이성윤 텃스대 교수와 공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가 평통주최 안보 강연에서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이성윤 텃스대 플레처 스쿨 교수와 함께 강연한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MIT 룸 32-155에서 열리는 평통 안보 강연은 엄 총영사의 첫번째 평통강연이다.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

로 대북제재 문제가 대선 후보들의 의제로 오르고 또한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김정은 암살, 북한 핵시설 집중 파괴 등의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강연은 외교부의 입장과 북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http://www.baaff.org/venuestick-](http://www.baaff.org/venuestick-ets.html)

ets.html
강사: 엄성준 총영사, 이성윤 텃스대 플레처 스쿨 교수

강연내용: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응방향"

일시: 10월 15일 토요일 5:30Pm
장소: MIT Room 32-155
주소: 32 Vasser St. Cambridge MA
bostonkorean@hotmail.com

공통된 견해는 대북 제재와 대화

▶▶4면에 이어서

워 보이나, 외교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결국 제재와 압박, 상황 여하에 따른 대북 협상 재개라는 정책 옵션을 잘 조합해 가면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선제 공격 등 무력이 아닌 대북 제재와 대화로 막힌 정국을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10월 4일 세미나에는 플레처 스쿨은 물론 하버드대, MIT 등 인근 대학 내 한반도 정책에 관심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다수 참석하여 발표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editor@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고대 교우회 모임 "푸짐한 만남 고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에 가을 정기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삼성그룹 부회장을 역임했던 이학수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이 보스톤을 방문하여 교우모두를 초청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학기 새로운 신입 회원들을 환영하고 1년간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의논한다.

이태호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역 고대 교우들을 2016-2017년 첫 모임에 초대한다"고 말하며 "많은 교우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교우 간의 소식과 선후배 간의 훈훈한 정담도 나누는 푸짐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에 가을 정기모임을 갖는다

한 만남이 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40여 년 전에 설립되어 여러 모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친밀한 교류와 친목을 다지며 또한 보스톤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소 및 교통 문의는 이태호

(tle0813@hotmail.com; 617-780-2999), 전인택 (ingome22@gmail.com; 857-998-3318)로 하면 된다.

일시: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장소: 추후 공지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아시아아메리칸영화제에 보스턴 출신의 한국계 배우이자 가수인 캐서린 박이 성우연기로 참가한다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 한국계 캐서린 박, 성우 연기 참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과 케임브리지에서 열리는 보스턴 아시아아메리칸영화제에 보스턴 출신의 한국계 배우이자 가수인 캐서린 박이 성우연기로 참가한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보스턴아시아아메리칸영화제에서는 개막작 타이러스(Tyrus)를 비롯해 폐막작인 디타이거헌터(The Tiger Hunter) 까지 약 25편이 넘는 장단편이 출품해 상영된다.

특히 21일 금요일 저녁 단편영화제의 세 번째 작인 만화영화 업인클라우드(Up In Clouds)에 캐서린 박이 성우로 출연하며 상영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2분짜리 짧은 단편인 이 만화영화는 미국 최초의 중국 여성 비행사였던 쉬편칭의 이야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에드 모이가 감독했다. 이 영화는 여성이 아버지와 먼지날리는 공항 인근에서 차운전을 배우다 날고 싶은 욕구를 발견한다는 내용이다.

보스턴 아시아아메리칸 영화자의 작품들은 케임브리지의 브레틀 극장과 다운타운 보스토 패러마운트 센터의 브라이트패밀리 스크리닝룸에서 상영된다. 업인클라우드지는 패러마운트 센터에서 금요일 저녁 상영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 한인회 회관 건축기금모금 바자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한인회의 한인회관 건축기금 모금 바자회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슈아 한마음 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붓글씨 시연, 한국어 이름 쓰기, 종이접기, 페이스 페인팅 등과 태권도 시범이 함께 진행된

다.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우천시엔 실내에서 오후 2시까지 행사) 내슈아 한마음 교회 (555 Broad Street, Nashua, NH)

bostonkorean@hotmail.com

광대 위협 미 전역에 확산, 확인 안된 신고 잇달아

▶▶1면에 이어서

지난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등장한 '소름끼치는 광대(Creepy Clown)'가 아이들을 숲으로 유인했다는 실제적 근거 없는 보도가 이뤄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도미노처럼 모방범죄를 불렀다. 현재까지 소름끼치는 광대 공격에 대한 신고는 매사추세츠를 포함하여 미 본토 39개 주에서 접수됐다.

처음에는 소문으로 퍼져나가던 이 광대 공격은 광대 복장을 한 괴한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위협,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살인했다는 괴소문까지 퍼지기도 했다. 모방범죄와 목격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광대에 대한 공포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일리노이 주립 대학에서는 과제 발표를 위해 광대 복장을 한 학생이 경찰에 체포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상당수의 신고가 대학 캠퍼스의 학생들의 '잘못된 장

난' 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된 곳도 있다.

심지어 백악관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아직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각 지역 사법당국이 광대 위협을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위를 환기시켰다.

다가올 할로윈에는 더 큰 범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학교에서는 광대 복장을 금지시켰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맥도날드는 11일 성명을 통해 당분간 자사의 광대 캐릭터인 '로널드 맥도날드'를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내에서 광대가 소름끼치는 무서운 캐릭터로 등장한 것은 스티븐 킹의 소설 'It' 이었다 추후 이 소설은 영화화 되기도 했다. 광대는

과다한 얼굴화장으로 실제적 표정을 볼 수 없는 무서움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공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염려가 사실을 확대해석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실화소설 '나쁜 광대(Bad Clowns)'의 저자이자 민속학자인 벤자민 래드포드는 CNN 인터뷰를 통해 "이전에도 80년대 매사추세츠 유명광대 소동처럼 유사한 광란의 물결이 있었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고 말하며 이번 광대소동도 그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야깃거리를 즐기는 인간들로 인해 루머와 염려가 섞여 눈덩이 처럼 커진 것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소설가인 스티븐 킹 또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광대 히스테리를 진정시키자는 글을 올렸다.

itshunne@bostonkorea.com



현재까지 미 39개주에서 광대출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풍역, 환약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TCR 글쓰기 여름캠프 한국에서 열린다

미국 고교 역사 학술 잡지 콩코드리뷰 주관
하버드대 역사학 박사 힐랜 박사 총괄
TCR 논문 게재 고교생 아이비리그 진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고교생 역사학술 잡지인 콩코드리뷰 (The Concord Review; 이하 TCR) 글쓰기 여름캠프가 한국에서도 열린다. 세계 유일의 고등학생 역사 논문잡지인 TCR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내년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TCR 캠프의 총괄 매니저인 스티브리는 “캠프의 목적은 참가학생들이 스스로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며 “2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참가자들은 역사 논문 초본 정도는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CR은 매사추세츠 서드베리에 위치하고 있다.

TCR 캠프는 논문 자료 조사 방법, 작성 요령, 명사 강의 등의 수업으로

이뤄져 있다. 1주차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다. 2주차에는 선생님들의 개인지도를 받아 직접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영어로 이뤄진다.

TCR 캠프의 커리큘럼은 하버드대 역사학 박사인 Dr. Heelan 과 하버드에서 역사 석사를 수료하고 (최우수 졸업 논문상 수상) 현재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중인 Ms. Wesner가 디자인 했다. 역사 전공 석,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하버드대 역사학과 재학생들이 보조 선생님이로 활동한다.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은 1대 6으로 구성된다.

스티브리 매지저는 “해외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려면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며 “TCR 캠프는 해외

명문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실력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스톤에서 진행되는 캠프는 6월4일부터 16일, 6월 25일부터 7월7일까지 두번에 걸쳐 개최된다. 한국 및 보스톤 TCR 캠프 참가신청은 TCR홈페이지 (www.tcr.org/summer)에서 할 수 있다.

1987년 창간한 TCR에는 현재까지 세계 38개국 1천22명의 고등학생이 자신의 논문을 게재했다. 콩코드 리뷰는 “논문게재 학생 중 36%가 미국 아이비리그(미국 하버드, 컬럼비아, 코넬 대학 등) 진학에 성공했다. 나머지 인원도 영국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명문대에 대부분 입학했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shah.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Flying to Canada?
Entry rules have changed.
Find out if they apply to you.
Canada.ca/eTA

cic.gc.ca

Government of Canada / Gouvernement du Canada

Canada

10월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모든 비자면제국가 국민(미국 시민권 제외)들은 eTA (전자여행허가)를 입국 전에 필수 등록해야 한다

이번 달부터 캐나다 방문객은 eTA(전자여행허가서) 받아야

미국적 이외의 외국인 사전 신청 필요
미 ESTA와 다른 점 있어 혼동 없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앞으로 캐나다에 항공편을 통해 입국(경유)하는 미국적 이외의 외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이하 eTA)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는 캐나다 달러가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통해 \$7(캐나다 달러/1인당)가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들도 사전에 eTA를 받는 제도를 지난 3월 15일부터 실시 해 왔다. 지금까지는 제도기간으로 eTA가 없는 외국인들도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사전에 전자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미국 시민권자는 지금과 같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캐나다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자나 작년 8월 이전에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획득한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재입국 할 경우에도 eTA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항공로가 아닌 육로나 해로로 입국하는 사람은 eTA가 필요하지 않은것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서(ESTA)와는 다른 점이다.

만약 eTA 없이 캐나다 공항에 도착 했을 경우에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 등의 기기로 eTA 신청이 가능하다.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따로 서류를 프린트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위해 결재한 영수증은 프린트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캐나다 이민국은 밝혔다.

eTA에 관한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 안내는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facts-ko.asp>)
itshunne@bostonkorea.com

10월에 열리는 10가지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해가 점점 짧아지고 외투가 두꺼워지는 가을의 중턱, 10월이다. 수확의 환희가 한풀 꺾이고 단풍이 낙엽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이 시기엔 한층 차분한 이벤트들이 보스톤에 주렁주렁 열린다. 보스톤 북 페스티벌과 앤틱 북 박람회 등, 독서와 관련 이벤트들이 진행되는가 하면 채식 페스티벌, 코믹 엑스포 등 이색적인 주제의 박람회 또한 개최된다. 세계 최대 규모로 보스톤 찰스 강변에서 열리는 레가타 레이스가 열리는 시기도 바로 10월. 물론 10월 말의 최대 이벤트인 할로윈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포트 포인트 오픈 스튜디오(Fort Point Open Studios)

포트 포인트 아트 커뮤니티에서 기획한 이 행사는 일 년에 두 번씩 열린다. 이번 가을 열리는 이벤트에서는 로베르토 마이티(Roberto Mighty)의 단편영화 '피치 파이(Peach Pie)'가 상영되고, 레슬리 밀러(Leslie Miller), 필립 소이어(Philip Sawyer)를 포함한 작가들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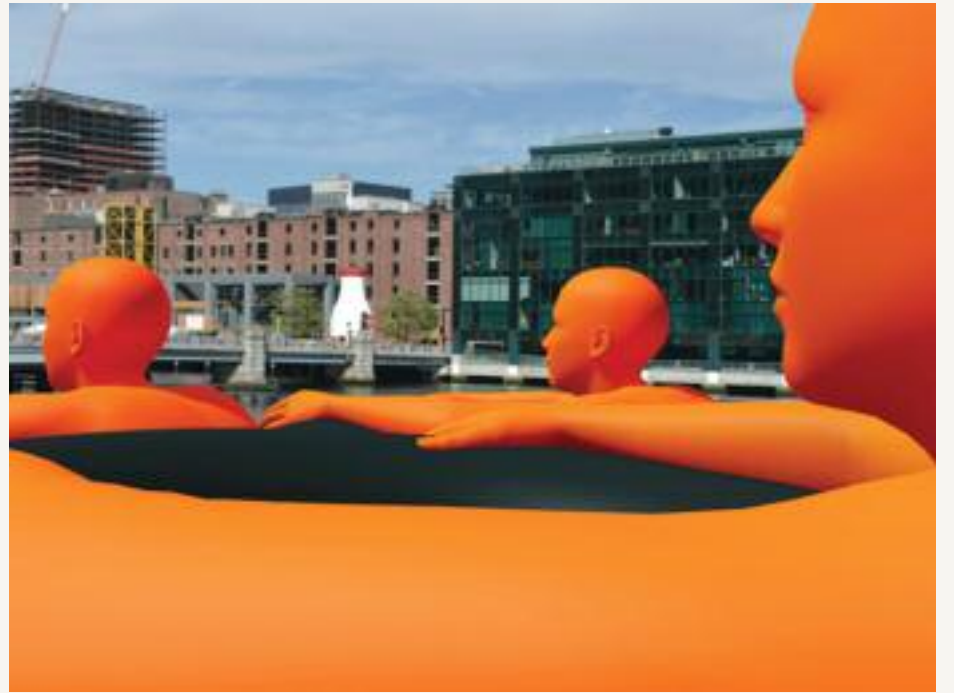
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앤 힐쉬(Ann Hirsch)와 제레미 앵기어(Jeremy Angier)의 SOS 작품의 일부로써 포트 포인트 채널(Fort Point Channel)에 오렌지색의 수영하는 사람의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무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Fort Point, fortpointarts.org.

보스톤 북 페스티벌(Boston Book Festival)

작가들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행사는 일 년에 한번 씩 열리며, 매해 유명한 작가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에는 룸(Room)의 작가 엠마 노도휴(Emma Donoghue)와 잔존물(Leftovers)과 작은 아이들(Little Children)을 집필한 보스톤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톰 페로타(Tom Perrotta)가 게스트로 초청된다. 진행되는 대부분의 워크숍과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 10월 15일, 장소: Copley Square, bostonbookfest.org.



포트 포인트 아트 커뮤니티에서 기획한 이 행사는 일 년에 두 번씩 열린다

보스톤 국제 앤틱 북 박람회(Boston International Antiquarian Book Fair)

보스톤 국제 앤틱 북 박람회에서는 희귀하고 값비싼 고서들을 취급하는 수십 개의 출판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패널 토크 및 워크숍에서는 컬렉션을 시작하는 방법과 보스톤 음악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만약 소장하고 있는 고서가 몇권 있다면 박람회 기간동안 무료로 감정을 받을 수 있다.

무료,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장소: Hynes Convention Center, 900 Boylston St., boston-bookfair.com.

비하인 더 씬(Forced from Home "Behind the Scenes")

난민들의 고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시이다. 전 세계 난민캠프의 사진과 물품들을 통해 난민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의 가이드를 통해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미리 등록해야 관람할 수 있다.

무료,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장소: Long Wharf, forcedfromhome.com.

보스톤 채식 푸드 페스트(Boston Veg Food Fest)

미국 전 지역에서 요리사들과 강연자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페스티벌을 찾는다. 채식식단에 대한 대화를 열고 참여자들이 지역의 채식을 찾도록 하고자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채식 식단 조리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장소: Reggie Lewis Athletic Center, 1350 Tremont St., bostonveg.org.

헤드 오브 찰스 레가타(Head of the Charles Regatta)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레가타(보트) 경주가 올해에도 찰스강변에서 열린다. 세계 최강팀들이 맞붙는 이 경기를 응원하며 강의 멋진 경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무료, 10월 22일에서 23일까지, 장소: Charles River, hocr.org. ▶▶9면으로 계속



"Behind the Scenes" 난민들의 고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시이다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북부보스톤한인교회
Hanboston

**북부보스톤한인교회에서
사역자를 초빙합니다.**

북부보스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유스그룹 전도사님을 초빙합니다.

자격은 신학교 재학 또는 졸업하신분으로
주10시간 이상 헌신할수있고, 2세 청소년을
양육사역에 참여와 소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업무: 최소 주10시간 사역
(토요일 저녁모임 및 주일아침 예배 등)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와 같이 연락 바랍니다.

문의: parkwanm@gmail.com/978.269.4198
교회: 978.470.0621

주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8면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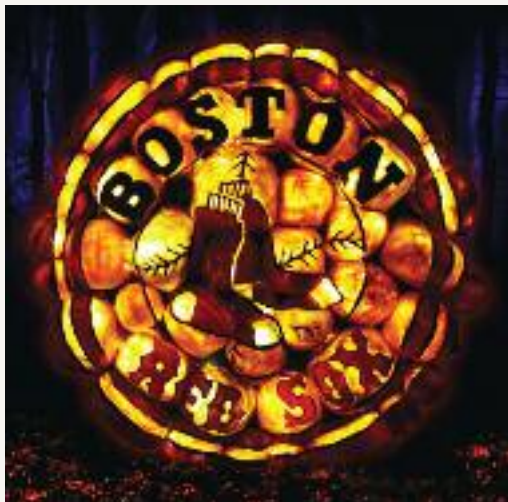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레가타 경주가 올해에도 찰스강변에서 열린다

매사추세츠 인디펜던트 코믹 박람회(Massachusetts Independent Comics Expo)

매사추세츠의 인디펜던트 코믹 박람회는 지역의 작가들과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다른 만화 쇼들과는 다르게 만화의 창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들과 지역의 애호가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보스턴 코믹스 라운드테이블(Boston Comics Roundtable)과 레슬리 대학의 아트 앤 디자인(Lesley University College of Art and Design)학과의 합동으로 주최되며 다양한 워크숍과 토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료,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장소: University Hall at Lesley University, 1815 Massachusetts Ave., micexpo.org.

네포셋 호박등 띄우기 (Neponset Pumpkin Float)
매사추세츠주 산림자원보호국(The Massachusetts



보스턴 시포트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손으로 조각된 잭오랜턴이 설치될 예정이다

Department of Conservation and Recreation)에서 진행하는 네포셋 호박등 띄우기가 벌써 15회를 맞이한다. 조각한 호박등을 가져가면 데븐포트 크릭에 띄우는 잭오랜턴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초는 준비되어 있다. 지정된 체크인 시간에 공원 입구의 할렛 스트리트에서 점등을 하면 된다. 호박의 크기는 지름 8인치 이하여야 한다.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할로윈 복장을 하고 오면 좋다.

무료, 10월 20일, 체크인 시간 오후 5:30, 장소: Pope John Paul II Park, Hallet St., Dorchester

보스턴 커먼의 개구리 연못의 호박등 (Boston Common Frog Pond Pumpkin Float 2016)

매해 보스턴 커먼의 개구리 연못에서는 호박등 띄우기 행사가 진행된다. 각자가 만들어온 호박등에 점등을 하고 연못에 띄울 수 있는데, 호박은 지름 8인치 이하에 속이 비어 있어야 한다. 이 호박들은 이벤트 후에 거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호박띄우기 말고도 줌비 미로, 이케아 셀피 부스, 마술 트릭 등 다양한 할로윈 행사가 준비된다. 할로윈 복장을 입고 온 사람들은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도 있다. 호박등을 띄우는 것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비즈니스, 기관들은 Catherine.walton@sc-boston.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무료, 10월 23일 오후 4:30 - 6:30, 장소: Boston Common Frog Pond, bostonfrogpond.com.

더 라이즈 오브 잭오랜턴(The Rise of the Jack-O' - Lanterns)

5,000개의 호박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만큼 할로윈 분위기를 내는 것은 없을 것이다. 보스턴 시포트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손으로 조각된 잭오랜턴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데뷔하는 잭오랜턴 이벤트로, 이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꽤 유명하다. 실제크기의 공룡과 드래곤, 스타워즈를 비롯한 영화의 인기 주인공들이 호박으로 만들어진다.

입장료 \$22-26(홈페이지에서 50%할인티켓을 받을 수 있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장소: Boston Seaport and World Trade Center, 1 Seaport Ln., therise.org.

sun@bostonkorea.com



보스턴으로 'Hate-Cation' 떠난 심슨 가족 : 심슨 보스턴 에피소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스프링필드에 사는 다섯명의 노란 가족이 보스턴으로 휴가 Vacation 아닌 'Hate-Cation' 을 떠났다. 이미지 속 "보스턴을 싫어하자 (Let's Hate: Boston)" 라고 쓰여진 책자를 들고 퀸시 마켓에 서있는 호머는 자신의 타운 풋볼 팀인 스프링필드 아톰스의 유니폼을 입고 서있다. 자신의 아들 바트가 스프링필드 아톰스를 응원하지 않고 보스턴 팀인 패트리엇스를 응원하자 보스턴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겠다며 온 가족을 끌고 'Hate-Cation' 에 나선것이다. 심슨 가족은 보스턴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곳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저녁 8시, FOX사를 통해 방영된 심슨의 에피소드 '더 타운(The Town)' 의 내용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중의 하나인 심슨의 에피소드 한 편이 온전히 보스턴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애니메이션 곳곳에 이 지역 출신의 유명인사들이 등장한다. 캔톤 출신의 코미디언 빌 버(Bill Burr), LAPD의 형사역으로 유명한 로웰 출신의 배우 마이클 치클리스(Michael Chiklis), 렉싱턴 출신의 배우 레이첼 드래치(Rachel Dratch),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수 집필한 하버드 출신의 도리스 커런 굿윈(Doris Kearns Goodwin), 호프데일 출신의 코미디언 다

나 고울드(Dana Gould),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퀸시 출신의 마이크 미첼(Mike Mitchell) 그리고 보스턴 출신의 배우 제이슨 내쉬(Jason Nash)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보스턴에 대한 농담으로 가득찬다: MIT의 너드, 보스턴의 특이한 액센트,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의 헤트코치 빌 벨리치(Bill Belichick)의 전형적인 모습인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엄격한 얼굴이 그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뉴베리 코믹스 로고, 던칸스 도넛(Duncan's Doughnuts), 보스턴 인근의 바닷가에 종종 등장해 사람들이 바다괴물이라고 오해하곤 하는 (괴물이 아니라 개복치다) 베이비 웨일 제이(baby whale, Jay!) 등,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을 법한 묘사도 꽤 등장한다.

심슨의 책임 프로듀서인 매트 셀먼(Matt Selman)은 본래 워터타운 출신이고, 심슨의 작가 데이브 킹(Dave King)은 니드햄에서 자라났다. 셀먼은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 "고향사람들이 좋아하길 바랐다" 며 "혹은 적어도 워터타운 출신의 멧덩구리가 망쳐났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랐다" 고 보스턴닷컴(Boston.com)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목통, 어깨통, 허리통, 손목통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죽상동맥경화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당뇨, 고혈압
- ⑦ 만성 질환, 중추신경 질환, 신경통
- ⑧ 기타 재활치료로 치료되지 않는 다양한 질환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hwa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11월 주민 투표에 나올 4가지 법안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가장 큰 이슈
슬롯머신, 차터 스쿨 추가 법안도 관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오는 11월 8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중요한 안전에 대해 주민 투표를 하게 된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일인 동시에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들에 대해 결정을 하는 날이다.

이번에 찬반을 결정할 주민 투표 질문은 4개이다. 각각의 질문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질문1: 슬롯머신 게임장 추가

YES: 카지노와 슬롯머신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매사추세츠 게이밍 위원회가 기존 시설에 추가로 1개의 슬롯머신 게임장 라이선스를 내줄 수 있게 된다.

NO: 카지노, 슬롯머신과 관련한 현재의 법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 투표에 제안된 법안은 게이밍 위원회가 추가로 슬롯머신 게임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신에 슬롯머신은 1,200대 미만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드 게임 같은 테이블에서 하는 게임은 허락되지 않는다.

질문2: 차터 스쿨 추가

YES: 매년 최대 12개까지 신규 차터 스쿨을 허가해주거나, 기존 차터 스쿨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신에 매사추세츠 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NO: 차터 스쿨과 관련한 현재 법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법안은 차터 스쿨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군에서는 차터 스쿨을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차터 스쿨을 추가로 허가해줄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주민 투표를 통과하게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질문3: 동물 학대 금지

YES: 식용으로 기르는 돼지나 닭 등의 가축을 작은 우리에서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축을 사육하는 우리는 동물들이 눕거나 설 수 있고 자유롭게 몸을 돌릴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NO: 농장에서 사육하는 기존 법에 변화가 없고, 따라서 현행대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우리에서도 돼지나 닭 등을 사육할 수 있다.

주민 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동

물들이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우리에서 사육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와 계란 등의 유통 및 판매까지 금지된다. 다만 운송이나 전시, 의학적 실험 목적 등의 예외 조항이 있다. 법제화 될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질문4: 마리화나 합법화

YES: 21세 이상의 성인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리화나의 재배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세금도 부과된다.

NO: 현행법이 유지되며, 의료 목적을 제외한 마리화나의 소지와 사용은 불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1세 성인은 집 안에서는 10온스까지, 집 밖에서는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으며,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매사추세츠 주 법으로 마리화나를 허용하더라도, 각 타운이나 시 정부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jsi@bostonkorea.com



미국의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88.5%로 매사추세츠 주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MA주 안전벨트 착용 늘었지만 여전히 최하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전자 5명 중 1명 꼴로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의 교통 안전 연구 프로그램의 조사 결과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의 78.2%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작년의 74%보다 증가한 수치며, 2006년에 67%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였다.

교통부 고속도로 안전부의 제프 라라손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곳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가 늘었다고는 하나 미국 전체와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74%로 미국 내 48위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주는 뉴햄프셔(69.5%)와 사우스 다코타(73.6%) 밖에 없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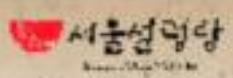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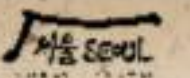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Soul.com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istro.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un@ownnewengland.com
Su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그린라인 연장 공사 점차 현실화

연방교통청 10억불의 기금 지원예정
케임브리지 시에서 2018년부터 5년간 5백만불 지원예정
11월에 서머빌 시와 5천만불의 지원금 협약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오랜기간 연기 되었던 23억달러 규모의 MBTA 그린라인 연장 공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커먼웰스매거진(commonwealth-magazine.com)은 지난 6일 그린라인 연장 공사에 10억달러의 연방보조기금을 제공할 예정인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이 기존보다 훨씬 예산규모가 축소된 신규 연장공사 계획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MBTA가 2018년부터 5년간 케임브리지 시로부터 5백만달러, 즉 총 2천5백만달러를 지원받는 계약을 체결

했으며, 다음 달에는 서머빌 시와 5천만달러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라인 연장 공사가 현실화되면 현재 그린라인 종점인 리치미어로부터 서머빌과 메드포드를 전철로 연결하게 되며, 이는 총 4.3마일 구간에 달한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계획안은 작년 말, 그린라인 연장 공사 추정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10억 달러 더 많은 30억달러로 뛰면서 난항을 겪었다. 베이커 행정부는 그린라인 연장 공사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연장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에 체결 되었던 계약을 취

소하고 규모를 줄인 새로운 설계를 도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인해 7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신규계획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진행될 그린라인 연장공사의 위험분석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방교통청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연방보조기금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한편, 케임브리지 시와 MBTA의 협약 내용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시가 지원하기로 한 2천5백만달러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린라인의 리치미어역이 이전될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그렇지 않게 될 경우 MBTA는 케임브리지 시에 지원금 모두를 돌려줘야 한다. 또한, 예상비용인 23억달러보다 적은 비용이 들 경우에도 그에 따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sun@bostonkorea.com



현재 그린라인 종점인 리치미어로부터 서머빌과 메드포드를 잇게 될 4.3마일 구간의 그린라인 연장 공사가 서서히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뉴욕 피츠포드에 있는 웨그먼스

웨그먼스 메드포드에도 진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기 슈퍼마켓 체인 웨그먼스가 메드포드 소재 메도글랜물 일부에 25년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뉴욕 로체스터에 본부를 둔 웨그먼스는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식품으로 매사추세츠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벌써 7개짜 매장의 건립을 목전에 두게 됐다. 메도그랜물은 미스틱밸리 파크웨이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올해 초 마살과 콜스 등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정리

된 상태였다.

메드포드 마이클 글린 시장은 지난해 11월 6만 스퀘어풋 규모의 공간을 웨그먼스에 사용인가를 발행했다고 시정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웨그먼스 측도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혔었다.

웨그먼스는 노스보로, 벌링톤, 체스넛힐, 웨스트우드에서 진출해 있으며 내틱 몰과 펜웨이 입점이 2017년 그리고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송진(GINA)**과 **송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송진), 617.780.7839(주송원)
gchol@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美 공화 혼전 거듭... 일부 의원 트럼프 지지철회 반복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음담패설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일부 공화당 현직의원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당내 분열 양상이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튜(사우스다코타) 상원 상무위원장, 스콧 가렛 하원의원(뉴저지) 등 트럼프 지지 철회 대열에 합류했던 최소 4명의 현직의원이 다시 트럼프 지지로 선회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엑세스 할리우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당내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더는 트럼프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이후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을 비롯해 다수의 공화당원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는 등 '엑소더스'가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후보를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맞서고, 라이언 의장과는 날카로운 대립각이 이어지면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결국 트럼프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난 주말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던 브래들리 번 하원의원(앨라배마)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공화당원이며, 민주당에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즉시 대선후보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튜 의원도 전날 사우스다코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 당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은근슬쩍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텍사스 상원의원(네브래스카)은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용인할 수 없으며, 트럼프가 물러나고 마이크 펜스가 대선후보가 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브래스카 라디오방송에서 "트럼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는 여전히 트럼프-펜스를 지지한다"고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4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공화당이 갈팡질팡 내분을 거듭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표심을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마스 데이비스 전 하원의원은 당내 분열이 "투표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있다"면서 "개개인의 결정은 이해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yeoulim@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WP, 클린턴 지지선언 "자질 갖춘 준비된 대통령 후보"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유력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 대선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13일 차기 대통령으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라는 편집국 명의 온라인판 사설에서 "어둡고 추악한 이번 선거에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면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잘 준비된 후보가 있다는 것"이라며 "클린턴이야말로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에 대해 "완고하고, 탄력적이며, 단호하면서, 현명한 사람"이라며 "클린턴은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직무에 투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클린턴의 최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끔찍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갖추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지 그 이유로 지지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많은 미국인들이 클린턴을 불신하고 그를 싫어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과거 화이트워터 게이트, 이메일 스캔들 등 결함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약점은 또 그의 강점"이라며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그는 분열된 국가를 통치하고,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앰브리지에서 선거유세를 벌이고 있다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마스터 US 월드컵 프로
 aj.usgolf@gmail.com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진품상차이...
 100% 진품상차이...
 100% 진품상차이...
 100% 진품상차이...

문의 617.248.3131 Happydol@ymai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섬삼짱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시로 소득편중 심화 오바마 "기본소득 해법될 수도"

(서울=뉴스1) 정해민 기자 = 스위스가 지난 6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당시 스위스 국민들은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부결시켰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획한 단체 BIS는 "기본소득이 로봇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사회적 약속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시로 일자리·임금 감소...소득 보장 논의해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한 IT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12일 일부 공개된 '와이어드' 11월 특집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일상 모든 부분에서 전문화된 AI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문화된 AI들은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 AI가 적절하게 통제된다면 경제를 번창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AI에는 부작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임금에 하락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소득에 대해

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AI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를 반드시 대체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일자리 종사자들의 임금에 하락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변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떻게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사회적 약속과 미국의 경제 모델이 새로운 기술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 소득(Universal Income)이 좋은 모델인지에 대해 우리는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논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술 산업의 승자독식구조가 부의 편중 확대

수 년 내에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고 시민들의 봉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모든 시민들에게 생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CNN머니가 인용한 옥스퍼드 대학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자리의 47%를 향후 10~20년 내 기계가 대체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량 실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럭 운전자,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은 사라질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다. 기술계와 자동차산업계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사업체들은 오래전부터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왔다. 자동화로 비용을 낮추고 순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진보로 자동화 설비가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끼쳐 왔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일하는 미국 남성의 비중이 줄었다. 1954년에는 25~54세 미국 남성 중 98%가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88%만이 일한다.

중산층 임금도 더 이상 미국 경제성장률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중산층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반면 상위 1%의 부는 점점 늘어난다. 특히 전형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진 디지털 산업의 소수 기업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최첨단 컴퓨터, 로봇,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은 최근 수 년 새 미국의 5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기업들보다 과거의 코카콜라, 펩시, 포드, GM 등의 산업구조가 다수의 승자를 만들어냈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

hemingway@news1.kr



일본 소프트뱅크의 휴머노이드 페퍼(Pepper)

애플에 삼성같은 상황 펼쳐진다면? 더한 악몽될 것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판매를 중단하며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이에 11일 마켓워치는 유사한 상황이 애플에게 발생할 경우 결과는 더욱더 악몽과도 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의 전체 매출의 95%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를 통해 발생한다. 이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와 태블릿에 대한 매출 의존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이다.

삼성 IT 및 모바일 통신 사업부는 지난 분기 25조5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의 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기간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했다. 여기에 아이패드까지 포함하면 매출 비중은 67%까지 뛰어 오른다.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휴대용 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애플은 텔레비전, 스마트카, 증강현실 등 사업 다변화를 위해 기업을 인수하고 고용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업 다각화가 매우 잘 이뤄졌다. 스마트폰은 물론 냉장고, 텔레비전,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부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분기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는 총 매출액의 23.5%를 담당했다. 프린터 등의 소비자 가전 부문은 23%의 비중을 나타냈

다. 이에 더버지(The Verge) 편집진인 톰 워렌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삼성은 노트7을 죽이기로 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만일 삼성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삼성의 사업 구조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 인베스트먼트리서치의 리처드 윈저 애널리스트는 노트7 리콜로 인해 삼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억달러에서 25억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는 정부 조사와 관련된 잠재적 비용과 고객 손실에 따른 매출 하락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맥쿼리 증권에 다니던 김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경우 삼성이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12억달러를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년까지 이러한 부정적 과급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레디트스위스도 노트7에 의해 내년 삼성의 순이익이 3% 감소하리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yung@news1.kr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수 가능.
 주방기술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이승철 답변태도 '분 안풀린' 2野... "전경련 해체 · 개혁" 촉구

(서울=뉴스1) 박응진, 서미선,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3일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을 모금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의 전날(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이 부회장이 출석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은 지금 피의자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사 중 사안을 말하지 못했으면 면탈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아니라면 '수사 중 사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진술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태도를 보서는 전경련이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개선 · 개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거의 없었다"며 "정권 둘러리로서의 상근 부회장의 모습만 보였다. 저런 전경련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더민주의 공식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단체로서의 순기능을 발

휘하지 않고, 정권 시키는 일만 대행하는 대행업체로 전락한 전경련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해체에 준하는 개혁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전경련 수장인 허창수 회장님에게 요청한다. 더 이상 상근 부회장의 농단에 이용당하지 말고 전경련 개혁에 직접 나서달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 회의에 참석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의 몸통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했지만 시종일관 '수사 중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금해 정채불명 재단에게 몰아준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이제 없게 됐다. 전경련 정관 1조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은 온데간데 없다"며 "청와대를 등에 업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전경련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현 정부 하수인임을 자임하는 것"이라며 "전경련의 유통기한은 끝나 하자 있는 제품이다. 국민의당은 전경련의 해체를 위해 가능한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좌),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우)

이승철, 미르·K모금 의혹에 "수사중이라 답 못해"

(서울=뉴스1) 김영신, 윤다정 기자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2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성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의 추궁에 이렇게 답변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선 의원의 질문 답변을 위해 증언대에서 "답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로 인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미르·K스포츠 관련 질문에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

이 부회장은 안종범 청와대 정

책조정수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에 대해 일정부 분 하는 일이 있어서 가끔은 한다"며 "통화는 아니고 행사 때 (만났다)"고 언급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재만 부속 실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과 관련해서는 "재단 이사진과 협의를 해서 뜻을 모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박병원 경총 회장이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모금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해진 데 대해 묻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역시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국감장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eriwhat@news1.kr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bill chun MD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OCT. 14 - OCT 20, 2016

PORK KATSU BOWL

Sweet, savory, crispy and soft.
The ultimate comfort food made easy.

H마트와 함께 만드는 초간단 가정식! 고슬하고 따뜻한 밥위에 바삭한 돈까스, 달달한 소스를 곁들인 돈까스덮밥을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Gobo 우엉 \$1.99 lb.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lb.	Washington Fuji Apple-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1.49 lb.	Ginger 생강 \$0.88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Purple Sweet Potato-Hawaii 보라색 고구마 \$1.99 lb.	California Fuyu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13.99 box	Hami Melon 허미 멜론 \$1.29 lb.	Dried Persimmon 곶감 \$2.49 lb.	수녀님 콩두부 SOONYEWON Tofu All Varieties/14 - 16oz. \$0.9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ork Dais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 \$4.99 lb.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와이 \$8.99 lb.
Whole Chicken 동양 \$1.49 lb.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돼지 성육살 \$4.99 lb.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부샤부용 얇게 썬 쇠고기 \$9.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비프 통살 스테이크 \$6.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Abalone 냉동 전복 \$19.99 lb.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30 - 40% \$5.99 lb.
Salted Mackerel 노르웨이산 저염 고등어 \$3.99 lb.	SEA PRODUCTS Half-shelled Mussels 반개 홍합 5lb. (1kg) \$7.99 lb.
Scallop 냉동 초개 편지 \$12.99 lb.	TONGTONGRAY Half Cut Swimming Crab 동동개 절반 꽃게 2.15 lbs. (1kg) \$10.99 lb.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ung G Medium Grain Rice 정기미 40 lb. \$25.99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백스 7.4oz x 126x/box \$13.99
DONGSUL Maxi Coffee Mix Original Mocha Gold 90g - 100% Arabica \$10.99	SHIRAKU 100% Pure Sesame Oil 식용유 946ml \$9.99

농협 NongHyup

한국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H마트가 농협과 함께 다양한 한국 최상의 제품들로 한국산 농수산물 특별판(대량)을 경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맛보시고 100%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을 구매하세요.
OCT. 21 - OCT. 30, 2016 Only at Hmart Burlington

HAOREUM Seasoned Roasted Seaweed 해조류 마에 볶도록 도식해진 해초 - 0.15oz. x 800x/pkg \$2.99	중장미 100% 천연 색상조 절고추장 CHUNGJU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 5.5 lb. \$14.99	GOMPYO All Purpose Wheat Flour 김표 중력 분쇄물 4.4lb (2kg) \$3.99	HARM Instant Garlic Chicken Stew 4.4lb (2kg) \$9.99	HAOREUM Dumplings All Varieties/2.05 lb. \$4.99
유원 참오미/참양미 디스 01 Korean Sweet Pancakes Sesame Bread Mix 각기 All Varieties/ 0.3oz. \$3.99	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리 1.5oz. 2\$5	니우이 소세지 NISSUI Fish Sausage 13.5oz. 2\$7	오리온 초코파이 ORION Choco Pie 16.5oz. 2\$5	BINGGRAE Barana Flavored Milk Drink 생크림 배나맛 우유 All Sizes/2.11 x 2.11oz. (60g) \$5.99
백슬레 녹차 맛젤 NESTLE Matcha Kit Kat Chocolate Bars 4.7oz. \$4.99	장미차에 라우에 드링크 SANGARIA Roseume Drink All Flavors - 200ml x 6/600ml/pkg. \$5.99	KUHAUS Mini Blender 쿠하우스 미니 믹서기 1.5L/1.8L \$19.99	HELLO HOME Fry Pan 할로홈 프라이팬 30cm/12" \$6.49	ROON Hairdyo 각종 화장품의 생체용 생체액 All Sizes/2.11 x 2.11oz. (60g) \$9.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ultiple yearning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final sale prices depend on the major sale items. H-MART 914, 945726 5742 - 42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3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미르 · 우병우 · 개헌' 레임덕 가능자?...靑, 조기 차단 고심

안보위기 불구, 지지율 하락...20%대 고착화 우려
역대 정권, 4년차 후반 5년차 초반 레임덕 발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불거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최순실 및 미르·케이(K) 스포츠재단 의혹, 최근엔 개헌론(論)까지 제기되면서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안보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권의 거듭된 의혹 제기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 중이다. 지난 6월 동남권신공항 발표 논란과 7월 사드(THAAD) 경북 성주 배치 등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TK)의 이탈이 발생하고 '보수 성향'인 50대 이상 지지율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수층 결집으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안보이슈는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에선 지지율 하락 저지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와 남북고위급 접

촉합의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4%에서 54%까지 급등했고, 오는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엔 40%에서 43%로 상승했다. 하지만 5차 핵실험 이후엔 33%에서 31%, 30%, 29%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초유의 안보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임기말 국정동력이 완을 의미하는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5년차 1분기, 노무현 대통령이 4년차 3분기에 각각 10%대 지지율로 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5년차 2분기, 이명박 대통령이 5년차 1분기에 각각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질 경우 레임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4·13총선의 결과 16년 만에 나타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지형과 임기 말 상황이 겹치면서 자칫 '조기 레임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국정흔들기'로 규정하고, 조기 레임덕 차단에 고심하는 모습이 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우 수석 의혹이 처음 제기되자 "일방적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했고, 다음 달인 8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수사 과정을 언론에 유출한 점을 놓고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또한 최순실·미르 재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사태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우 수석 의혹과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을 밝히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우 수석을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그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과 함께 일반 증인으로 이승철 전 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출석시켜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우 수석의 국감출석은 "관례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승철 부회장의 일반 증인 출석은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재점화한 개헌 또한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점을 가늠할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론에 제동을 건 발언을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비박(非박근혜)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개헌론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

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안보·경제 위기 속에서 '국정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 개헌카드를 꺼내들며 선불리 국정영향력을 소진하기 보다는 계속 개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도 청와대로선 유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의 진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

박명진 문예위원장 "박병원 발언삭제" 큰일...바로잡아야

(서울=뉴스1) 김정률, 서미선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르재단 모금방식과 관련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기업 발목을 비튼다" 등 문제제기한 내용 등이 빠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 10일 질타를 받았다.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입수한 회의록 원본보다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14쪽 적다고 지적하자 "실무자들이 여담이었고 안전과 상관없어 삭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회의록은 속기 초벌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 보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 신상발언, 여담에 속하는 것, 기타 위원들이 삭제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삭제해 정리해서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원본으로 제출한 게 맞다. 다른 원본이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 의원이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1월6일 제173차 회의록은 도 의원이 별도 확보한 원본보다 14쪽이 누락돼있었다.

도 의원은 미르재단 모금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큰 박병원 경총회장의 발언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문예위원 중 포스코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분(박병원 회장)이 '포스코에서 미르재단에 30억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추진만

하는 것이라고 해 부결 못하고 왔다', '대기업 발목을 비튼다' 이런 내용을 다 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 위원장은 "그렇게 여러 페이지가 누락된 건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안전 위주로 정리했다고 해도 재량권을 너무 확대해 한 것 아닌가 한다"며 "규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도 의원은 또한 회의록 삭제가 이뤄진다 해도 '음성파일 35:30~47:40' 식으로 삭제구간을 명시해 기록하는데 문예위는 이것과 달리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해도 되느냐"고 물어세웠다.

박 위원장은 이에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삭제됐다면 이건 큰일"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회 제출 자료를 결재했나'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언제 일일이 결재를 하겠냐", "결재를 안 받고 보낸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보내는 자료에 결재 책임자가 없으니 말이 되느냐'고 비판을 쏟아내자 박 위원장은 "제 관리부실이었다.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업 교문위원장은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라. 이는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smith@news1.kr

문예위 "박병원 '미르가 대기업 발목비틀어' 여담이라 삭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르재단 모금방식과 관련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대기업 발목을 비튼다" 등 문제제기한 내용 등이 빠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 10일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입수한 회의록 원본보다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이 14쪽 적다고 지적하자 "실무자들이 (삭제된 내용이) 여담이었고, 안전과 상관없어 삭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록 문제를 취임 뒤 신경써본 적이 없어 제 큰 불찰"이라면서도 "관례적으로 회의록은 속기 초벌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 회의록으로 보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형태로 정리한 내용은 위원들 신상발언, 여담에 속하는 것, 기타 위원들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삭제해서 정리해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그것을 원본으로 제출한 게 맞다. 다른 원본이 있는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래 초벌본은 정리된 직후 다 삭제해버린다고 들어, 저도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초안이 있던 건지 참 궁금하다"며 "그렇잖아도 보여달라고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갖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이 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1월6일 제173차 회의록은 도 의원이 별도로 확보한 45쪽짜리 원본보다 14쪽 누락돼 있었다.

그는 "특히 문예위원 중 포스코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분(박병원 회장)이 '포스코에서 미르재단에 30억원을 낸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추진만 하는 것이라고 해 부결 못하고 왔다', '대기업 발목을 비튼다' 이런 내용을 다 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위원회에 요지만 기록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 그에 의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페이지가 누락된 건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안전 위주로 정리했다고 해도 재량권을 너무 확대해 한 것 아닌가 한다"며 "규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Residential



Single Family

5 Duston Lane Acton MA
6,547s.f. 9.13 Acres 5 Bed
4.5 Bath
Asking \$1,499,000

Residential



Condo

26 Boylston Rd. Unit 1 Newton MA
좋은위치 2 Bed 1 Bath 970 s.f.
Condo 2 parking spaces
Asking \$449,000

Residential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및 Garage.
파킹, T-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700,000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림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드림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9. Single family : 22 Wilow park, Wellesley **SOLD**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2. 미림 식품 : Allston **SOLD**
13.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5.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16.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7.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8.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9.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Commercial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Commercial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Commercial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Commercial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Commercial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Commercial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나원태: 617.642.3156
신보경: 508.361.6064

제이슨전: 617.642.5670

여야, 미르 및 K재단 · 문화계 블랙리스트... '충돌' 국감

野 미르 · K재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추궁
외통위 한일 위안부 문제 전면 재협상 놓고 정최소동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의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미르 · K스포츠재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각종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돼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국을 뒤덮고 있는 미르 · K스포츠재단 의혹과 함께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정치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3명이 미르 · K스포츠재단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들)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미르 · K재단이 설립된 것은 추정단계를 넘어 명백한 사실에 가깝다"며 "국가의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사유화해 자신들의 비즈니스모델로 삼는 무차별적인 전횡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도 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속칭 청와대 블랙리스트, 100쪽에 달하는 문건이 있냐"는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부인했다.

교문위에선 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도중 더민주 여성 의원인 유은혜 의원을 향해 반말로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한 의원은 차 감독이 자신의 측근들과 각종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과 관련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드물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던 과정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나오자 자유 의원을 보며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얘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말을 한 것"이라며 "다르게 느끼셨다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사과에

도 불구하고 유 의원과 더민주 소속 여성 의원들은 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한 · 일 위안부 문제 전면 재협상' 발언으로 시작부터 몸살을 앓았다.

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것을 언급한 뒤 "한 · 일 외교장관 합의 무효화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 · 일 정 부간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일각에서는 북에 대한 군사적 제재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필요없게 정부가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심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계획이라며 심 위원장의 편향적 의사진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과거 자기(야당)들은 집권할때는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주면서 핵개발 하도록 해놓고 한마디 말 없고,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바로 집단 퇴장했지만, 심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간

사인 이태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심 위원장은 오전 11시40분께 회의를 속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도 국회법과 관행 등의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파행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사위에선 최근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제기한 '수사 무마 대가 20억 수수 전직 검찰총장'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실명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됐고,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친분이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아버지 소유의 빌라 매입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돼 쟁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재산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고, 기재위의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담배세 인상선 재고차익을 이용한 수천억대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계 담배회사가 관련 의혹과 한진해운에 이은 추가 해운사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TL이 최악의 단종사태를 맞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부실 인증'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chacha@news1.kr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르재단 · K스포츠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고 발언대는 비어 있다. 야당은 이날 "지금 문체부 국감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인체택을 단 한명도 하지 못한다는 건 20대 국회 교문위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그런 문서 존재하지 않아"

도종환 "오늘중 제출해줄것 더민주 공동명의 요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3일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정치검열을 위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속칭 청와대 블랙리스트, 100쪽에 달하는 문건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염 의원은 "블랙리스트 명단과 일치하는 정부지원 예술인이 있다면 오후 1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이와 관련,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도 간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조 장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말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내

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중 (해당 문건을) 제출해 줄 것을 더민주 의원 공동명의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靑,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서 사실 아니라고 설명"

문체부 국 · 과장 강제 퇴직 보도에도 같은 대답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12일 문화 예술계의 정치 검열을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는 주장에 "문체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와 문체부가 문예위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 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명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주장과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 예술인, 세월호 시국선언한 문학인, 지난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문화 예술인,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문화 예술인 등으로 분류돼 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3년 전 최순실 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좌천된 문체부 국 · 과장이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적 영향으로 최근 강압적으로 명예퇴직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문체부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안 했다는 건가'라고 묻는 질문에 "내용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체부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girin@news1.kr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리야게/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심/돼지 불고기/참양구이/돈까스/치킨까스
야채/떡볶이/순두부찌개/단장찌개/계란찜/공깃밥/안주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심구이/특제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푸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리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돼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게/불닭/오동 아재구이/순두부찌개
단장찌개/계란찜/공깃밥/떡볶이



영업 시간 **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60-80인)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CJ대한통운 BOSTON 대리점 계약 해지 공고

CJ 대한통운에서 MA지역 위탁 운영중인 BOSTON 대리점을
여해와 같이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을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래-

해지 일자: 2016년 10월 03일
업소명: KOREA EXPRESS BOSTON INC
(CJ 대한통운 BOSTON 대리점)
대표자: 정 대 훈

2016년 10월 03일 이후 이사를 관련 문의는 CJ 대한통운
미국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성실성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TEL: 201.643.1043 / 1045 / 1049
E-MAIL: ms.cho@cj.net
ss.shim@cj.net
ea.kim@cj.net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진정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선거법 기소 후폭풍... "공안몰이" vs "秋 대표 사퇴"

정치보복 논란에 정국 '빙하기' 도래하나
與에서도 비박 중심 "납득 어렵다" 불만

(서울=뉴스1) 조소영, 이정우 기자 = 4·1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대거 진행되며 정치권이 들쭉거리고 있다. 특히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포함 대거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편파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 '추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 등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여-야 관계, 청와대-야권 관계는 썩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일인 13일 현재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까지 총 3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 등이 기소된 더민주는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검찰의 기소가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는 자당 대표가 기소된 만큼 전혜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설치에 의결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기소를 규탄하는 한편, 오후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성토했다.

더민주는 결의문을 통해 "지도부 무더기 기소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덮고, 진실을 규명하는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보복기소이자 야당 탄압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표적기소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소된 추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공안몰이에 나섰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워내겠다"라고 밝혔다.

금태섭 대변인은 "총선민심을 6개

월 만에 외면하는 청와대와, 개혁을 피하려는 검찰의 합작품이 '친박무죄, 야당유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역을 옮기지 않으면 뒤를 캐겠다'며 대놓고 공갈 협박을 자행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이 무혐의인데, 제1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기소한 것은 년센스 그 자체"라며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 국민계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 반발하는 야권을 압박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야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비화하지 말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대 총선 사법 기소는 정치권에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구태가 잔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누리당은 국민계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반발하는 야권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생떼"라며 "야당은 지도부와 중진 다수가 기소됐다면 국민계 먼저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비주류인 비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학력위조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인 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문제로 기소된 또 다른 비박계 의원 측 관계자 또한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면 당과 정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krusty@news1.kr



추미애 대표(앞줄 가운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野, '야당 편파기소' 강력 반발... "이래서 檢개혁"

더민주, 긴급 최고위 이어 의총 개최해 총력대응
'편파기소 대책위' 설치 및 이정현 檢 불기소에 재정신청

(서울=뉴스1) 김현,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3일 검찰이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기 전날(12일)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하는데 대해 '편파적 처사'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특히 녹취록 공개로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들은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을 문제삼으며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하는 것을 보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검찰은 어이없게 허위사실공포를 하는 이유로 저를 기소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기소, 명백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고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탄압"이라면서 "반드시 대선에 승리해 정의를 바로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탐문 결과 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란 게 중복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 뒤에 청와대와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파헤쳐온 자당 오영훈 의원 등이 전날 갑자기 기소된 점을 들어 "명백한 보복 기소"라며 "박근혜정권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즉각 법조인 출신인 전혜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설치하는 한편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오후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야당탄압!'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의총에서 "박근혜정권이 국감 파행 파업으로 도저히 (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사정기관 동원해 국감 막바지에 전

방위적 공안몰이 나선 것"이라고 규정했다.

송영길 의원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도 어느 정도지,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의총 직후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야당탄압'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낭독했다.

이와 별도로 더민주는 전날 검찰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 한 데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검찰은 맘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새누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에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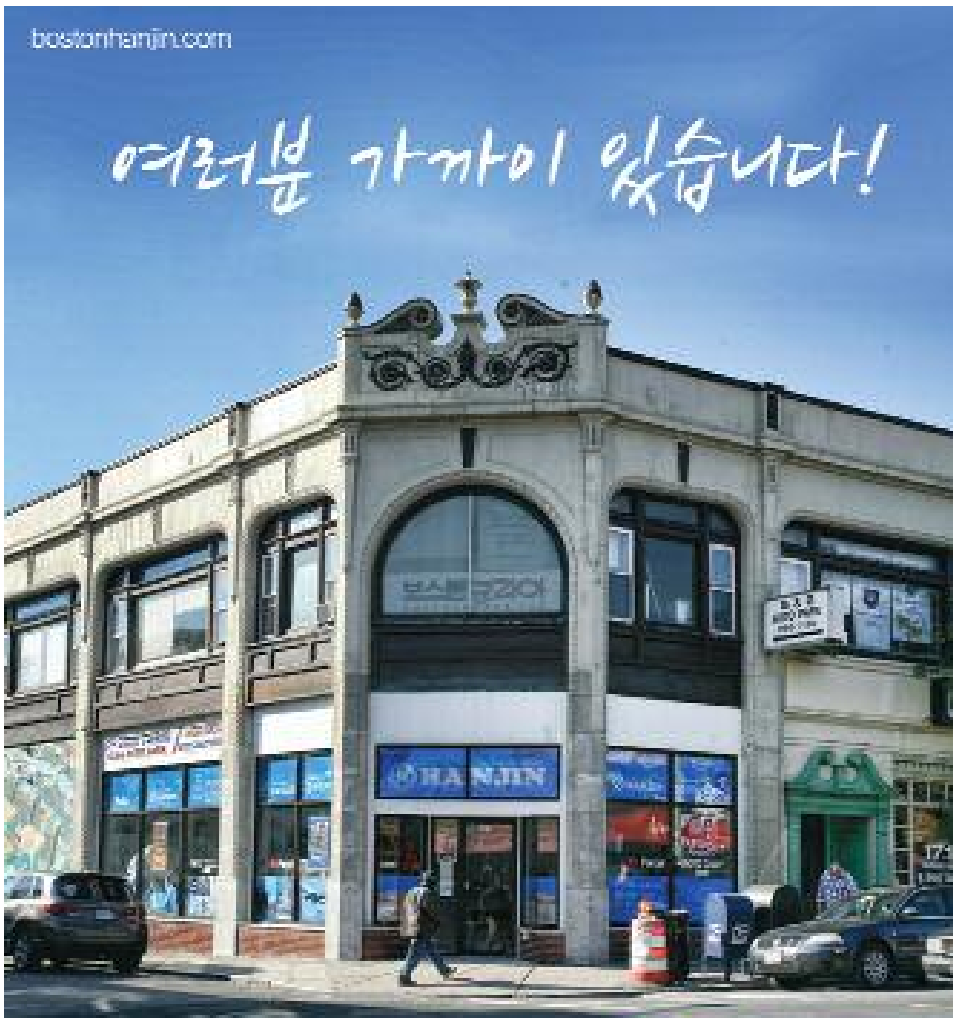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과) 이제 민주검찰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뎌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식 기소를 하는 검찰의 칼날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라고 성토했다.

gayunlove@news1.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Farandole COUPON

입소문 치킨(Mild Glaze Bites) small \$12.95
크리스피 치킨(Crispy Bites) small \$12.95

Buy One Get One Free

유효기간: 2016년 10월 31일까지
일리버리(\$20이상 주문)/take out/레스토랑 방문

* 주문할 새끼치킨 2종 이상/ 주문시 알러지 부류에 따라 알러지 주의, 기타 알러지 주의사항은 해당 레스토랑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른 브랜드와 중복 사용할 수 없습니다.

Farandole
MEDIAN KOREAN CUISINE

입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들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L.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을 위해서 계속해 주세요



주문전화 :
617.982.7118
(배달이 올때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웹사이트: www.masta.us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 정회원(\$100/년): 강창남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It's a sign of great things
to come in real estate.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2016 NFL 정규시즌 5주차 TOP 3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 NFL 정규시즌이 5주차를 마치고 6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시즌 초반 탐색이 끝나고, 중반을 향해 가며 각 지구별로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고된다.

블레처리포트의 NFL 파워랭킹 상위 3팀을 통해 현재 NFL에서 가장 강력한 3팀을 살펴보자.

3. Denver Broncos

4승 1패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까지 가능하게 했던 브롱코스의 수비도 결국 무적은 아니었다. 브롱코스의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수비가 팔콘스의 기본에 충실한 공격에 무너졌다. 팔콘스는 마치 90년대에 유행했던 공격 전술을 사용하듯이 기본적인 아이(I) 포메이션 공격을 앞세워 브롱코스의 수비를 무력화시켰다.

1경기를 패했다고 해서 브롱코스의 기세가 꺾이거나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던 브롱코스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경기 초반에 수비가 상대팀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공격에서 충분한 점수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브롱코스는 공격이 약한 팀이 아니다. 이미 충분히 재능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비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공격을 통해서도 해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왔다.

2. Minnesota Vikings

5승 0패

5주차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NFL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무패팀이 바이킹스다. 바이킹스는 또 한 번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 초반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킹스는 이번 시즌에 새로 등장한 팬서스나 시호크스와 같은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바이킹스는 현재 주전 쿼터백(테디 브리지워터), 주전 러닝백(애드리안 피터슨), 주전 리시버(시테펀 디스)가 부상 중이다. 다행히 백업 쿼터백인 샘 브래드포드가 바이킹스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바이킹스는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다.

바이킹스가 무패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수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바이킹스의 수비수들은 수도 없이 텍사스의 쿼터백을 경기장에 눕게 했다. 한 주간 휴식 기간을 갖는 바이킹스가 공격까지 더욱 다듬어 돌아온다면 이번 시즌 가장 강



탐 브래디의 복귀로 패트리어츠는 예전 공격력을 다시 회복하였다

력한 팀이 될 수도 있다.

1. New England Patriots

4승 1패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느낌이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랍 그롱코스키는 조금씩 예전 기량을 보이고 있고, 올해 새로 합류한 마텔러서 베넷은 기대 이상의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와이드 리시버들 역시 중장거리 패스까지 잘 받아내고 있

다.

그러나 무엇보다 출장 정지 처분에서 복귀한 쿼터백 탐 브래디를 빼놓을 수 없다. 브라운스와는 복귀전에서 브래디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분명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406 패싱야드에 3개의 패스 터치다운을 기록한 브래디는 AFC 금주의 공격수로 뽑히기에 충분했다. 이미 2쿼터까지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은 브래디는 경기 후반에 백

업 쿼터백과 교체되었다.

강력한 타이트엔드 듀오와 재능있는 리시버들을 보유한 패트리어츠는 브래디의 복귀로 최고의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정규시즌 무패를 기록했던 2007 패트리어츠보다 지금의 패트리어츠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오승환 "빅리그 첫 등판, 첫 공 던질때 가장 기억에 남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다음아닌 '첫 등판'이었다.

오승환은 11일 서울 서초구 웨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오승환은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해 아쉽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국내 프로야구와 일본리그에서 최고의 마무리투수로 활약한 뒤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오승환은 올 시즌 76경기에서 79%이닝을 소화하면서 6승3패 19세이브 14홀드와 평균 자책점 1.92, 탈삼진 103개 등으로 맹활약했다. 시즌 초반에는 셋업맨의 임무를 맡았지만 중반 이후에는 팀의 마무리 자리를 꿰차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76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등판이라고 했다. 오승환은 4월4일 개막전인 피츠버그 파이러츠전에 등판해 1이닝 2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첫 세이브나 첫승보다도 개막전 첫 경기를 나간 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난다. 야구선수로서의 최종목표가 메이저리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승환과의 일문일답.

-시즌을 마친 소감은.

▶어릴 때부터 꿈으로 가지고 있던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다. 팀에 합류하고 나서 마이크 매서니 감독을 포함한 팀 메이트들이 친근하게 대해줬다. 특히 루키임에도 베테랑처럼 존중해줘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내년 시즌도 준비를 잘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기억에 남는 경기가 많지만 첫 세이브나 첫 승보다도 개막전 첫 경기를 나간 게 아직 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첫 공을 던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첫 경기 등판했을 때의 느낌은.

▶야구선수 최종목표가 메이저리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몰리나와의 호흡은 어땠나.

▶메이저리그 아시는 분들이라면 몰리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실 것이다.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 포수 중 하나다. 각 팀 모든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선수들을 처음 상대하는 나로서는 많이 믿고 의지했다. 잘 적응이 되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성적을 놓고 보면 20세이브를 하지 못한 게 아쉽고, 중요한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은 것도 아쉽다. 8회부터 나가서 노아웃 만루 막고 9회에 점수를 쫓는데 아쉬운 경기였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크게 조언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메이저리그에 올 기량 정도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 관리만 어릴 때부터 잘 하면 분명 메이저리거들과 상대해서도 이길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배운 점이 있다면.

▶미국 선수들과 처음 같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베테랑 선수들에게 오히려 물어본 게 많았고 어린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다. 맏 보우먼 같은 친구들이 아시아 야구에 관심이 많더라. 4연투도 하고 한국시리즈 4이닝도 던졌다고 하니 불펜투수들이 많이 놀라더라.

starburyny@news1.kr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오늘을 위한 예언 세미나

REVELATION TODAY

새 날이 밝아온다

성경 예언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며, 다가오고 있는 시구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미래 청사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언세미나는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단 하루도 오늘을 위한 예언 세미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1 2016년 10월 16일 일요일

예언서, 열어야 하나 열어야 하나?

Opening Night
마사추세츠에 생
예언서의 연구회
필요한지, 과연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
속 예언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준다.

2 10월 17일 화요일

예언된 유럽의 운명

고대 바빌론과, 로마 제국, 유럽의 역사까지 이어 예언된 2500년의 역사를 알아본다.

3 10월 18일 수요일

작은 뱀,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7장이 말하는 로마 제국 이후의 디아블로인 유럽의 역사, 기술로 풀려나온 진상이 밝혀진다.

계속되는 세미나 연재들:

- G2는 어디, 예언된 미얀마
- 미국의 부, 베리인인가?
- 이미것은 전쟁
- 세천사가 전하는 잊힌된 복음

JOHN BRADSHAW

It Is Written 텔레비전의 감사이신 John Bradshaw 복사는 G2 대륙에서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금껏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들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JAMES SONG

송영우 목사는 오랫동안 다국어로 요한 계시록의 예언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동안 다국어로 요한 계시록의 중요 예언들을 쉽고 분명하게 풀어줄 것입니다.

Coming to you LIVE in


Stoneham

시간 October 16-22,
Nightly at 7:30 p.m.

장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무료 입장

매일 밤 흥미진진한 세미나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RevelationToday.com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10/14
식당 호스티스와 호스트 경험자 구함.
파티타임 & 풀타임, 쿠킹 Help
T. 781-249-5838

10/28
뉴튼. 입주나 출퇴근 하면서 집안 살림
하실 분. 맞벌이 부부와 중학생, 대학생
, 개한마리 T. 617-899-4959

10/28
보스톤에 있는 미용실 매매합니다.
좋은 장소, 가격 협상 가능.
T. 617-818-5596

10/21
벨몬트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617-631-4915, 617-484-6062

11/4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T. 781-264-8037

10/21
세탁소에서 프레스 하실분 구합니다.
T. 617-955-793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6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영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훌륭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료를 더하는 최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전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어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개발기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기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드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드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어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세메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터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광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위너미용실	508-737-8636
신현칠미용실	617-947-6293
에이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해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미용실(EXT.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조현경미용실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희미)미용실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인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은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케어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키치소아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역류성식도염 vs 식도이완불능증, 차이점 비교한 후 치료해야"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역류성식도염과 식도이완불능증 증상 비슷해 오인 가능, 발생원인과 치료법 달라"

이번 주 휴람에서는 대표적인 식도 질환에 대해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안쪽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런데 식도조임근의 힘이 약하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액이나 소화된 음식물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위식도역류라 하고, 이러한 역류질환이 심하면 식도염, 식도궤양, 협착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타는 듯한 가슴통증과 목의 이물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궁금증

1) 가끔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인가요? : 건강한 사람도 가끔 위액이 역류되는 일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 식도운동이 즉시 일어나 다시 위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역류가 자주 일어나 식도로 넘어온 위산과 위속내용물이 식도점막을

자극하여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일으키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 점막의 상태를 보는 것이 좋겠다.

2)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에는 내시경검사, 24시간 식도 산도검사, 식도내압검사 등이 있다. 먼저 내시경검사를 통해 식도염의 정도 및 범위를 직접 볼 수 있고, 동반된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도 점막의 조직학적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기질적인 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24시간 식도 산도검사는 위식도역류질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다. 환자가 외래검사에서 기계를 부착한 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 있고 내시경 검사상 역류성 식도염이 진단되면 식도 산도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

3)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여러가지 약제가 도움이 된다. 효과도

좋으며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제는 오메프라졸이나 판토프라졸과 같은 양성자펌프 억제제다. 이 약제는 위산의 분비를 90% 이상 줄임으로써 비록 역류가 계속 일어나더라도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식도염의 진행을 막아 준다. 식도와 하부식도괄약근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약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위의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약제를 써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4) 음주나 과식도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카페인 함유된 커피, 초콜릿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신 과일주스나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등도 직접적으로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복압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저녁식사 후에 야식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대 머리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 위산이 덜 역류하게 되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식도이완불능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근절개술

음식을 삼켰을 때 음식을 위장으로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질환을 식도이완불능증이라고 한다. 음식물이 역류되는 증상이 나타나며 가슴 통증은 물론 목무게도 감소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과 증상이 비슷해



오인할 수 있으나, 식도이완불능증과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의 발생 원인과 치료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1) 식도이완불능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 식도이완불능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물을 포함한 유동식이나 고형식의 연하곤란이다. 그밖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역류, 가슴 통증, 흡인성 기침, 체중감소, 가슴 쓰림이 있으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식도이완불능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륨식도조영술, 위내시경 그리고 식도내압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륨식도조영술에서는 식도의 확장, 식도의 무운동증, 좁은 위식도접합부가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새부리모양으로 표현된다. 위내시경은 식도이완불능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며, 전형적인 소견은 식도의 확장과 식도내 저류된 음식물 소견이다. 하지만 위내시경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식도내압검사로 식도의 연동운동이 없고 하부식도괄약근이 이완되지 않는

소견을 확인하여 진단해야 한다.

2) 식도이완불능증의 치료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수술요법(근절개술)은 어떠한 경우에 고려되나요? : 식도이완불능증은 자연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대부분 점차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며, 역류로 인하여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식도암의 발생율이 정상인에 비하여 수십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식도이완불능증의 증상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수술적 치료로 근이완을 유도하는 약물적 치료와 풍선확장술, 보툴리눔 독소 주입법, 경구내시경적 근절개술을 포함한 내시경적 치료가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복부접근을 통한 복강경 식도근절개술이 표준 치료방법이다. 복강경 수술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최소침습수술이 가능해지면서, 90년대 초까지 주된 치료법이었던 풍선확장술을 대체하게 됐다. 현재는 수술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복강경 식도근절개술이 식도이완불능증의 일차적인 치료법이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가원기별 특별 혜택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이후 정기 (200reg, 4000)
- 7월18일 - 19(월)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에이, 한국/유학생/이민자/교통신교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am
일(Sun) : Closed





연예계 일상을 그린 드라마 '안투라지' 조진웅 · 서강준 · 이광수 · 박정민 · 이동휘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tvN 새 금토드라마 '안투라지'는 대한민국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배우 영빈(서강준 분)과 그의 친구들 호진(박정민 분), 준(이광수 분), 거북(이동휘 분)이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은갑(조진웅 분)과 겪게 되는 연예계 일상을 그린 드라마다.

먼저 조진웅은 극 중 차영빈을 비롯한 스타 군단을 거느린 거대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김은갑으로 변신한다. 김은갑은 평범한 매니저로 시작해 특유의 추진력과 사업수단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입지적 인물이다. 다혈질에 악담을 일삼는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 의리와 정이 많다. 공개된 포스터에서도 "먼저 스타 만들고 나서, 진짜 배우 만드는 게 내 전략"이라는 대사와 함께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발산 중이다.

서강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배우 차영빈을 연기한다. 차영빈은 빛나는 외모와 반항기 어린 눈빛, 소년같이 해맑은 미소로 연예인 사이에서도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는 배우다. 포스터 속 "최대한 인생 즐기는 거야. 그게 연기에 도움 된다니까"라는 대사가 쿨하고 긍정적인 차영빈의 매력을 잘 드러낸다.

이광수는 1990년대 후반 데뷔 후 반짝 스타로 활약하다 지금은 한물 간 스타 차준 역을 맡는다. 차준은 과거 아이돌 그룹 슈가보이즈 멤버였을 당시 인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기며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는 허세 캐릭터로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 속 "나 왕년에 H.O.T, 쟁키랑 같은 급이었거든?"이라는 대사가 이목을 사로잡는다.

박정민은 극 중 차영빈의 매니저 이호진으로 변신한다. 호진은 영화감독이 꿈이었으나 영화 제작부 막내로 들어가 컵라면을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며 좌절감을 느꼈다. 현재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 차영빈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신중한 성격에 작품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 차영빈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서 호진은 "매니저로 일하는 건지, 친구 뒤치다꺼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라며 고민을 드러내 향후 그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동휘는 극 중 친구들 사이에서 재롱과 귀여움을 담당하는 거북 역을 맡는다. 거북은 검색에 능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난과 농담을 즐기는 재간꾼이지만, 여자 앞에선 '찌질'하고 비굴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포스터엔 그의 백수 면모가 담겨 귀여운 매력 발산을 예고해 한다.

함께 공개된 단체 포스터에는 조진웅, 서강준, 이광수, 박정민, 이동휘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가 표현됐다. 제작진은 "지난 9일 진행된 'tvN10 어워즈'에서 조진웅, 서강준, 이광수, 박정민, 이동휘가 시상자로 올라와 '안투라지' 극 중 캐릭터를 연기했을 정도로 다섯 배우 모두 자신의 역할에 애정이 크다. 배우 분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소화해 매력적으로 선보일지 많은 기대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투라지'는 내달 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 토요일 밤 11시에 전파를 탄다.

hjk0706@news1.kr

'형', 조정석X도경수의 기막힌 동거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조정석, 도경수 주연의 영화 '형'이 11월 말 개봉을 확정 짓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형'은 사기전과 10범 형(조정석 분)과 잘나가던 국가대표 동생(도경수 분), 남보다 못한 두 형제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기막힌 동거 스토리를 그린 브로 코미디 영화다.

'건축학개론', '관상'에 이어 드라마 '질투의 화신'까지 천의 얼굴로 분해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는 조정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생을 팔아 가석방을 받아내

는 사기전과 10범 형 고두식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연기력을 인정 받고 있는 '총무로의 블루칩' 도경수(EXO)는 잘나가던 국가대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된 불운의 유도 선수 동생 두영으로 분했다.

속이 킁킁한 형과 앞이 캄캄한 동생 앞에 펼쳐질 기막힌 동거 스토리가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진다. 오는 11월 말 개봉 예정.

uu84@news1.kr



나영석PD "이서진X차승원? '삼시세끼' 마지막회서 볼 것"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나영석 PD가 이서진, 차승원이 함께 출연하는 '삼시세끼'의 가능성을 표현했다.

나영석 PD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7층 셀레나홀에서 열린 tvN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3' 제작발표회에서 "이서진, 차승원이 함께 출연하는 '삼시세끼'를 상상은 해봤는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으면 이상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나 PD는 "이서진, 차승원이 같이 컬래버레이션으로 출연하는 순간이 '삼시세끼' 마지막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시청자가 바라는 큰 그림이겠지만 그건 특별판이나 '삼시세끼'가 수명이 다해서 그만해야 할 때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 PD는 "두 팀이 아직 개성이 뚜렷하고 두 사람의 방식이 달라서 그들만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서진에 에릭, 윤균상이 합류한 '삼시세끼 어촌편3'은 새로운 섬 득량도의 이야기를 담는다. 앞서 정선편에서 활약한 이서진



의 어촌 생활, 새 멤버 에릭·윤균상의 합류가 관심을 모은다. 오는 14일 밤 9시15분 첫 방송.

hjk070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0월 3일 ~ 2016년 10월 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6.1%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3.2%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1.3%
3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21.3%
5	KBS2	월화드라마(구르미그린달빛)	18.6%
6	KBS1	KBS9시뉴스	17.8%
7	SBS	정글의법칙몽골	15.3%
8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0%
9	MBC	무한도전	12.6%
9	MBC	일밤2부(리얼입대프로젝트진짜사나이2)	12.6%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4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5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6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우주를 줄게	불빨간사춘기
02	숨	박효신
03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4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5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레드벨벳
06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07	Dancing King	유재석, EXO
08	목요일 밤 (Feat. 빈지노)	어반자카파
09	돌아오지마 (Feat. 용준형 Of 비스트)	헤이즈
10	세 단어	젝스키스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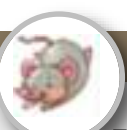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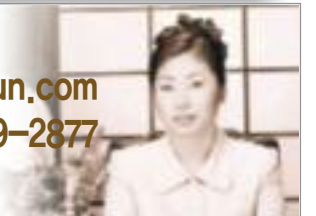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1	8		2		3		
	6				3	7	4	
7					6			
3					5			
	4	7	1		9	6	8	
			6					3
			7					6
	7	2	3				5	
		1		9		8	2	

10월 16일 - 10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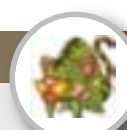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쥐띠 | 앞에서 끌어주고

●운수: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득이 따릅니다. ●애정: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7, 22일 길일. 16, 18일 주의.



소띠 | 병 주고 약주는

●운수: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금전: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애정: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거나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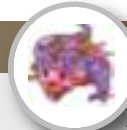
범띠 |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운수:가만히 있기보다는 야외활동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거래처가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게 됩니다. ●애정: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편해지고 관계가 관철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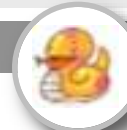
토끼띠 |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운수: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들이 차츰 해결됩니다. ●금전: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줄 것입니다. 평소보다 나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님 다위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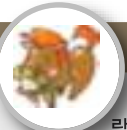
용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운수: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금전: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득이 되고 호박이 널뜰째 굴러들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와 예외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88, 76, 64, 52, 40, 28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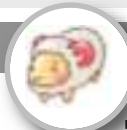
뱀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운수: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가 물려올 것입니다. ●금전: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치 않습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말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운수: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켜간다고 합니다. ●금전: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애정: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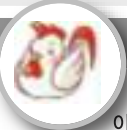
양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운수: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금전: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한쪽으로 마음이 굳혀졌다가도 또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흔들리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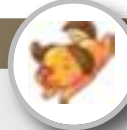
원숭이띠 | 내 편을 들어주는

●운수: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8, 21일 길일. 16,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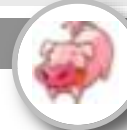
닭띠 | 전하위복의 상태로

●운수: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하위복의 상태로 바뀌집니다. ●금전:용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애정:마음이 걸리니 고민만 깊어집니다. 깨끗이 정리하자니 아직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지니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2일 길일. 16, 21일 주의.



개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운수: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하겠습니까. ●금전: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애정: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19일 길일. 16, 20일 주의.



돼지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운수: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애정: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21일 길일. 17, 20일 주의.

'대중가수 최초' 노벨문학상 밥 딜런

(서울=뉴스1스타) 권영미 기자 = 노벨상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노래하는 음유시인' 밥 딜런을 선정했다.

주로 시인이거나 소설가, 희곡작가에게 수여되어왔던 노벨문학상을 대중음악가가 받은 것은 1901년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노벨문학상 사상 가장 파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반드시 노벨문학상이 전문 학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우선 두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테오도어 뫼젠은 역사학자다. 노벨상위원회는 '로마의 역사를 쓴 그를 "현존하는 위대한 역사 서술의 대가"라며 1902년 노벨문학상을 수여했다.

1908년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크리스트프 오이켄은 "진리를 위한 그의 진지한 탐색, 그의 사상이 지니는 통찰력, 폭넓은 상상력 그리고 따뜻하고 힘있는 표현"을 평가받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또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은 1927년 '물질과 기억'이라는 철



학책, 1950년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권위와 개인'이라는 책을 쓴 공로로 상을 받았다.

1953년 영국의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회고록을 써서 상을 받았다. 지난해만 해도 기자출신인 벨라루스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시, 소설

도 아닌 '기록문학'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AFP는 이번 밥 딜런의 수상을 "노벨상위원회의 (처칠의 수상부터 시작한) 문학의 정의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연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ungaungae@news1.kr



'대세' 이선빈, '나 혼자 산다' 독보적 생활력 예고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나 혼자 산다'에서 첫 출연을 예고한 이선빈이 리폼의 여왕으로 변신해 눈길을 끈다. 이선빈은 개집부터 커튼까지 혼자서 거뜬히 만들어내며 독보적 생활력을 한껏 뽐냈다.

오는 14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 177회에서는 무지개 라이브에 첫 출연한 이선빈의 일상이 공개된다. 당시 녹화에서 이선빈은 리폼 솜씨를 발휘하며 알뜰하게 집안 살림을 만들어 가는가 하면 "집을 꾸미는 것에 대해 소망이 있었다"며 교과서급 DIY(Do It Yourself)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런 가운데 이선빈은 본인의 반려견 '아쵸'를 위해 옷걸이로 개집 만들기에도 돌입했고, 옷걸이와 씨름하던 그는 "이가 제일 잘되네"라며 도구보단 입 사용에 만족해하는 털털한 모습으로 큰 웃음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커튼 제작에 나선 이선빈은 천장에 손이 닿지 않자 "딱 이만한 크기면 되는데"라며 월슨(카메라 인형)을 밟고 올라가는가 하면, 작은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연약한 바구니에 올라가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등 엉뚱한 4차원 매력을 발산했다는 후문이다.

aluem_chang@news1.kr

세븐 "이다해와 연애, 걸릴 줄 알았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세븐이 이다해와 열애설이 불거진 시기에 대해 언급했다.

13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는 팩트 폭력단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세븐은 최근 이다해와 열애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일부러 가리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생각보다 늦게 걸렸네'라고 말하기도 했

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븐은 "공개되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며 "힘들 때 만나게 된 인연이라 더욱 소중하다"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uu84@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5 min / I-495 10 min / Newton 20 min

☎ call: e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9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MBC | 옥중화 |
| 2 | KBS |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
| 3 | KBS |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
| 4 | SBS | 사랑이 오네요 |
| 5 | MBC | 불어라 미풍아 |
| 6 | SBS | 당신은 선물 |
| 7 | MBC | 좋은사람 |
| 8 | KBS | 여자의 비밀 |
| 9 | MBC | 다시시작해 |
| 10 | KBS | 별난가족 |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노래가 좋아 |
| 2 | CJ | 노래의 탄생 |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대결 | 이주승, 오지호 |
|---|----|----------|

'노래의 탄생' 첫방, '음알못'도 폭 빠지는 음악대결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노래의 탄생'이 진정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보여주며 순조롭게 첫 회를 그려냈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tvN '노래의 탄생'에서는 '음잘알'(음악을 잘 아는 사람), '음알못'(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듀싱 대결을 펼치게 된 윤상-스페이스카우보이, 뮤지-조정치 팀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색깔의 매력적인 음악을 선보였다.

윤상과 스페이스카우보이는 보사노바 풍의 부드러운 음악을, 뮤지-조정치는 모타운 느낌의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고, 결국 윤상-스페이스카우보이 팀이 원곡자에게 선택을 받아 승리를 거뒀다.

원곡자로는 스타 셰프 최현석이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밝힌 최현석은 "미래를 고민하는 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위로를 전하고 싶어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주로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 요리를 하는 입장에 있던 최현석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의뢰를 하고 결과물을 기다리는 입장이 돼 신선함을 자아냈다.

reddgreen35@news1.kr



'대결' 오지호, 악역 변신 성공적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오지호가 헤비급 악역으로 변신한 영화 '대결'(감독 신동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결'은 취준생 풍호가 형의 복수를 위해 냉혹한 CEO 재희의 살벌한 현피 게임에 뛰어드는 내용을 그린 영화다. 최근 언론사사회 이후 신선한 콘셉트로 호평 받았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오지호가 생애 처음 악역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 '내조의 여왕' 등을 통해서 로맨틱 가이로 안방극장에 자리매김한 오지호는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액션과 로맨스, 코믹을 넘나들었다. 현재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딸바보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지호는 이전과는 다른 연기에 고민이 많았지만 강렬한 액션과 냉혹하고 무자비한 악역 캐릭터에 끌려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큰 키에 서구적인 외모, 완벽한 수트핏은 존재 자체로 화면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긴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권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제 4 회 총영사관 미술전 NOSTALGIA



김 정임
토론토 OCAD 대학 교수

유수례
유수례 갤러리 관장

2016.10.14 - 2017.1.31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reet #251, Newton, MA 02458



제 5 회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초대합니다



등록: www.kcsBoston.org (\$100 pp)
문의: 781-367-5993; info@kcsBoston.org
미술품 Silent Auction, 재즈 공연, Raffle



10월 22일 (토) 오후 4시반
Wellesley College Club
727 Washington Street, Wellesley, MA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연스러움이란?!

자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나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 우리는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아주 작은 들풀이나 들꽃을 보다가 감동에 취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에 더욱 신비하고 경이로운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어느 특별한 종교를 들추지 않더라도 절로 자연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나온다.

"자연이란 낱말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도덕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 도덕경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는 인간 사회에 대해 대응하여 원래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 또는 우주의 순리를 뜻한다.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은 현대어의 자연과 달리 명사가 아닌데, 원래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도덕경 주해에 '천지임자연(天地任自然)'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지'(하늘과 땅)는 현대어의 자연(Nature)이

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므로, 이를 요즘말로 옮기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에 있다'라는 뜻이다."

"한편 유럽의 여러 언어에서 자연을 뜻하는 낱말은 라틴어 natura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와 프랑스어의 nature, 독일어의 natur,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의 natura 등이 그것이다. 라틴어 natura는 '낳아진 것'이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φύσις의 번역어로 채택되어 '본성', 즉 우주나 동물, 인간 등의 본질을 가리키는 낱말로 사용되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이란 낱말은 서구의 nature를 번역하여 들여온 것으로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 비롯된 인간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것이란 관념과 17세기 과학혁명 이후의 자연주의적 관점 등이 함께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옛그제는 친구와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러운 것이 편안해서 좋잖아를 시작으로 자연스러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 자연스러움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들풀과 들꽃 산과 바다를 예로 들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계절마다의 셋길에서 만나는 자연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도 단 한 번도 똑같지 않았으며 느낌 또한 같은 때는 없었다. 들의 꽃이나 산을 오르며 만나는 숲의 나무에서의 느낌도 같았으며 바닷가에서 만나는 작은 모래 알을 시작으로 자갈돌 돌맹이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들마저도 그랬다.

자연은 이렇듯 누구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꾸미거나 감추거나 덮지 않고 스스로 있다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며 살았던 자연스러움이 문득 내게 커다란 '화두' 하나를 던져 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듯 자연스러움과 어느 각도에 있으며 어느 만큼의 거리에서 서 있는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연과의 멀어진 그 거리만큼 좁혀가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움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세상에서 상한 마음 지치고 찢긴 상처의 마음들을 치유하고 치유받으며 제 색깔과 제 모양을 찾는 것 말이다.

창조주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만들었다는데 그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일이 중요

하다. 그저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는 삶이 너무도 어이없지 않은가. 삶에서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궁금하지 않은가 말이다.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가치관에 대해 가끔은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별히 세상 나이 오십의 언덕을 올라보니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삶의 목적이 확실해야 가치관의 정립이 선다.

우리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왔고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잇고 살며 망각해버리고 사는 것이다. 스스로를 너무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바쁘게 살다가 자연스러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에서 너무 멀어지면 되돌아올 때쯤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 할만큼의 허탈함과 허망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과 자신 안의 또 다른 자신과 담담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옥수수 예찬禮讚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을이 깊어 간다. 서늘한 바람이 일면, 뜨거운 차차가 제격이다. 보리차와 커피도 가깝하다만, 더운 옥수수차도 맛이 깊다. 옥수수 철은 더웠던 여름과 같이 지나갔는데 웬 뜬금없는 옥수수인가. 내겐 아직 여름더위가 가시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여름 한국에서다. 구舊도심지에 텃밭근처를 지나칠때였다. 잇고 있던 옥수수가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보니, 아주 오랫동안 옥수수 나무를 못봤던 거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친구가 집 텃밭에서 딴 것이라며 몇자루를 나누어 주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선뜻 받았다. 옅은 갈색 털이 달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날 옥수수였다. 문제는 다음이다. 몇자루 되지도 않았는데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다. 친구와 헤어져 그 무거운걸 지고, 들고 지하철을 타고 걸으며 시내를 헤매며 다녔다. 삶아 먹기도 전에 팔이 빠지고 어깨뼈가 어긋나는 줄 알았다.

‘옥수수잎은 난초처럼 깔끔하고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거칠고 싱싱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그리고 거기에 바람이 스칠 때, 잎들이 부대끼며 서걱거리는 소리는 늘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사랑을 꿈꾸게 한다.’ (김훈 라면을 끓이며 중에서) 김훈의 표현대로, 옥수수잎은 바람을 맞을때 부대끼며 서걱인다. 그 소리는 너무 서늘해 요의尿意가 자연스럽다. 게다가 옥수수잎에 비라도 들이치면, 보기에 듣기에 사뭇 낭만이다. 도종환 시인이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에 썼던 시시이다.

옥수수잎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접시꽃 당신 중에서, 도종환)

역시 옥수수 라면 빵튀기도 있을 것이다. 팝콘도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전에 맞았던 강냉이 빵맛은 잊을 수 없다. 성조와 태극기가 엇갈려 그려진 부대자루에서 나온 그 강냉이로 만든 빵 말이다. 잉여농산물 구호물자가 배고픈 우리 아이들에게 먹었던 빵인게다. 노릇하며 갈색으로 잘 구어진 강냉이 빵은 냄새도 맛도 구수했더랬다. 하지만 나는 얻어 먹을 수 없었다. 나는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갈 형편이 되었으니 말이다. 풍기는 덥고 깊은 냄새는 먹고픈 욕망을 뚫고 올라섰다. 조금 떼어준 빵은 맛이 깊었는데 그것으론 도저히 양이 차지 않았다. 내 도시락과 바꾸자는 소리도 못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내게는 옥수수 차차도 맛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맛이 구수하기가 보리차나 엽차와 버금간다. 차가워도 뜨거워도 맛이 삼삼한데 퍼지는 냄새 또한 그윽하다. 고향의 맛인지도 모른다. 서늘해진 날을 따라 뜨거운 옥수수차를 우려내야 할까 보다. 가을이 다향나 보다.

사족이다. 옥수수를 심을 적엔 씨를 서너개씩 구멍이에 넣는다. 한 알만 넣으면 자라면서 쓰러진다 했다. 우리네 짧은 인생도 비오고 바람이 부는 때까지 서로 기대고 버티고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 옥수수에게서 배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명이나 먹고도 남아서’ (마태 16:9, 공동번역)



한가위 행사의 성원에 힘입어

김치 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 고국의 재료로 만든
100% 한국산 김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단 하루만 행사를 진행합니다.

일자: 10월15일(토요일)
시간: 오전 11시-오후8시
장소: 올스톤 홍콩 슈퍼마켓(구 88슈퍼마켓)
1095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02215



한국산 김치

딱 하루만 행사, 50개 수량한정
100%국산 고춧가루&양념에 버물린 프리미엄 배추김치
7oz (1/2 LB) = \$3/ea



일본수출용 다시마해초 무말랭이

딱 하루만 행사, 50개 수량한정
해풍건조시킨 제조도국산무에 완도산 다시마를 넣은
최고급 무말랭이 7oz(1/2 LB) = \$4.5/ea



최상급 고춧가루50%할인

도매상담환영, 아래 연락처 참조
2.2LB = \$6.55/EA
(Market Price \$11.95/2.2LB EA)



100%국산매실진액 50%할인 (PLUM EXTRACT):

無색소, 無올리고당, 無프락토스
100%매실원액 Guarantee
750ML 유리병 황매실 \$17/EA
1Liter 플라스틱 청매실 \$15/EA

※김치/무말랭이 관련해서 10월 15일 토요일 딱 하루만 행사합니다.

고춧가루 & 매실액 대량구매/도매구매 상담환영: 443.840.0925(본 연락처는 대량/도매구매시만 꼭 연락주세요)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9. 주권 회복을 위한 만리 길 (4)

마론 브란도의 오스카상 수상 거부

양심있는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인디언 인권 운동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마론 브란도(Marlon Brando)가 아카데미상 수상을 거부한 사건은 특별히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았다. 1973년 3월 27일 개최된 제45차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대부(The Godfather)에 출연한 마론 브란도가 남자주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수상을 거부하고, 대신에 아파치 인디언 전통의상을 입고 나타난 아파치계 혼혈 여자배우인 사친 리틀페더(Sacheen Littlefeather)에게 수상거부이유를 대신 읽게 만들었다. 마론 브란도는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도 인디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수상거부 사유로 밝혔다. 뒤이어 리틀페더는 그때 당시 벌어지고 있던 윤디스니 대치 상황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연예계 최대행사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그 파장은 넓고 깊게 퍼져나갔다. 이런 멋진 재능기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흑인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과 함께 워싱턴 인권투쟁 행진에 참가한 마론 브란도(1963)〉

펠티어의 옥중수기 'My Life Is My Sun Dance'

펠티어(Leonard Peltier)는 1944년생으로서 AIM 회원 활동을 해오다가 FBI 요원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977년에 유죄의 평결을 받아 플로리다의 감옥에서 종신형 징역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의 유죄 평결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아 각계각층으로부터 탄원이 쏟아졌다. CBS 텔레비전의 간판 탐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 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하였는데 관련 정황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펠티어는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도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도 펠티어의 재판은 불공정한(Unfair) 재판이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에 펠티어를 사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5백 명의 FBI직원과 가족들이 백악관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FBI국장은 클린턴에게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클린턴은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클린턴의 뒤를 이은 부시 대통령도 펠티어를 사면하지 않고 임기를 끝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6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연예계의 거부 데이비드 게펀(David Geffen)은 원래 열렬한 클린턴 지지자였는데 클린턴이 펠티어 사면을

거부하자 실망한 나머지 훗날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고 오바마 지지로 돌아서버렸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부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치인은 모두 거짓말을 잘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게 문제”라고 비꼬았다.

펠티어는 2000년도에 옥중수기 'My Life Is My Sun Dance' 를 발간하였는데 그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총장 출신의 인권변호사 램지 클라크(Ramsey Clark)가 서문을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댄스 끝나지 않은 나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최장거리 걷기(Longest Walk)

1978년에 AIM은 역사상 최장거리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인디언들의 단결과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내어 열 한 개의 반 인디언적인 법률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어느덧 인디언 권리찾기 운동의 성지가 되어버린 알카트라즈 섬에서 1978년 2월 11일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들이 신성시하는 담뱃대(Sacred Pipe)에 담배를 채워 넣었고, 그 담뱃대는 걷기 행렬과 함께 워싱턴으로 운반되었다. 행사의 성격은 영적인(Spiritual) 행사로 규정되어 국내외로부터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동참하였는데 이 중에는 일본의 니치다츠 후지이(Nichidatsu Fujii) 스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7월 15일 걷기운동 참가자들이 5,100km의 거리를 걸어와서 워싱턴

에 도착했다. 인디언 원로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을 워싱턴 모뉴먼트(Washington Monument)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다음 주에는 여러 곳에서 집회를 열고 현안 문제에 관하여 연설했다. 그들은 11 개 법안의 부당성, 인디언 정치범 석방, 나바호의 빅 마운틴 강제이주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들의 집회에 아카데미상 수상을 거부했던 마론 브란도,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도 참석했다. 이 행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인디언과의 조약을 파기하기 위한 법률안은 부결되었고, 인디언 종교자유법(American Indian Religious Freedom Act)이 제정되어 종교의식 중 피오테(Peyote) 사용이 허용되게 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이 행사 대표들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AIM은 Longest Walk(걷기 운동)가 개최된 지 30주년이 되는 2008년에 Longest 2를 주최했다. 이번에는 기존의 북쪽코스보다 남쪽코스를 추가해서 전체 거리는 13,200km로 늘어났다.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Maori)족도 참가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인디언 성소의 보전, 부족주권, 그리고 환경보호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이었다. 남쪽코스에서는 행진 도중에 대형봉투 8,00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9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그를 따라 함께 출전하였다. 이렇게 가야에 도착한 사다함은 또 자청하여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전단문을 급습하였다. 가야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전단량 위에 백기를 세워 놓으니 가야군은 완전히 기세를 잃었고, 이 때 이사부가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니 마침내 가야가 항복하였다.

대가야 평정의 일등공신은 당연히 사다함이었다. 진흥왕은 그에게 가야인 포로 300명을 노비로 주었으나 다 풀어 주었고, 옥토도 하사하였으나 이것도 사양하고 알천의 불모지를 대신 받았다(사다함 열전). 같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진흥왕이 가야인 200명과 토지를 하사하였으나 3번이나 사양하였기에 억지로 상을 내렸다. 하지만 포로들은 모두 자유롭게 풀어주고 토지 역시 모두 부하 낭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분명한 사실은 사다함의 대인다운 면모이다. 이로 인하여 그의 명성과 덕행의 칭송은 더욱 높아졌다.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한 사다함, 또한 숭고한 애민정신과 부하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사다함의 요절은 신라의 대손실이었다. 이에 앞서 그는 무관량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죽어도 변치말자고 맹세한 그들은 죽음으로 우정을 확인시켰다.

무관량이 어느날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의 죽음으로 몹시 슬퍼하며 통곡한 사다함 역시 7일만에 죽고 말았다. 그의 나이 17세였다(신라본기). 무관량과 사다함의 죽음을 화랑세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무관량의 죽음의 원인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낭주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이 남색男色관계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당시 사회상을 화랑세기를 통하여 들여다 보면 혼인에 있어서는 일부일처제였지만 축첩제 뿐만 아니라 남녀 구분없이 다수의 연인들과 자유롭게 상관하였으며, 동성애(남색, 용양신 등의 기록) 또한 사회적으로 개방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무질서하게 문란한 성관계로 방탕한 생활을 한것은 아니다. 일례로 사다함의 형인 토함은 사사에 아주 밝아서 많은 화랑들이 토함에게 사를 배웠다. 특히 하중(미실과 세종의 아들)의 기록을 보면 토함에게서 사를 배우고, 이화랑에게 가곡을 배우고, 문노에게 검술을 배우고, 미생에게 무를 배웠다. 즉 각 분야의 일인자들로부터 특수지도를 받았다. 또한 여기서 사뿐만 일반 역사이기보다는 '선사仙史' 를 뜻하는 것 같다. 신라 말기 고운

최치원이 살던 시기에 선가사서인 '선사仙史' 가 존재했으니 그 이전인 토함이 살았던 시기에도 선사가 당연히 있었다고 보인다. 선사는 단군이래로 부터 삼국의 유명한 선인仙人들의 사적事跡을 기록한 선가의 사서이다. 이렇듯 화랑도의 활동은 국토순례/명산대천 주유, 무사武士, 도의道義연마, 시가詩歌, 음악, 가무 등의 풍류 뿐만 아니라 학문과 인격도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84) 斯多含, 산스크리트어 Sakridagami(한 번 돌아오는 사람)를 한역한 단어인데, 다음 생애 한번 더 환생하면 다다음 생애에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경지를 말한다. 열 가지 번뇌 중에서 앞의 세 가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다음 두 가지에는 율메임이 덜해질 정도가 되면 사다함으로 인정된다(아라한이란 불교가 초기에 성립될 당시 힌두교 전승에서 '완벽한 성품을 가진 깨달은 사람' 을 뜻하는 말이었고 고하며, 어찌보면 부처와 같은 경지의 사람이지만 그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의미로 전한다. 여래10호,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에서 상당히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오늘을 위한 예언 세미나

REVELATION TODAY

새 날이 밝아온다

1

10월 16일 일요일



예언서, 덮어야 하나 열어야 하나?

2

10월 17일 월요일



예언된 유럽의 운명

3

10월 18일 화요일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등장

당신이 찾아 헤매던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2016년 10월 16일에 밝혀집니다.

계속되는 세미나 연재들:

- G2는 없다, 예언된 미합중국
- 짐승의 표, 베리칩인가?
-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Coming to you LIVE in

Stoneham

시간 October 16-22, Nightly at 7:30 p.m.

장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무료 입장



RevelationToday.com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쓸쓸한 사랑, 그 낭만에 대하여...(1)"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VIII -

만연한 가을이 왔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로 당당했던 푸르름은 서늘한 가을의 찬공기와 함께 세상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한때 그토록 강렬하게 뜨거웠던 사랑이 이별앞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낙엽처럼 무력하게 식어가듯, 이별의 장중한 연주곡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며 온 세상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의 말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별을 피할수는 없음을 이 가을은 이렇게 또다시 우리를 확인시켜주고있다. 스산한 가을의 향기타인지, 못다한 옛사랑의 추억을 담은 노래들이 가을에는 유달리 많다. 제목만 보아도 이별의 아픔을 토하는 노래임을 금세 알게하는 가을노래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낙엽따라 떠나간 사랑', '가을 편지' 등등, 이러한 가을 노래는 애잔한 선율과 함께 쓸쓸한 사랑의 기억을 반추시키며 더욱 더 가을의 낭만 속에 젖어들게 한다. 낭만 이야기 하면 386 남성 세대의 애창곡의 하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빼놓을 수가 없다. 가사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한다.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잔에다 짙은 섹스폰 소릴 들어보렴. 섹스폰 리프틱에 나뭇대로 멧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사이로 짙은 섹스폰 소릴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 아 있겠나마는 웬지 한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뱃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뱃고동 소릴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 아 있겠나마는 웬지 한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을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는 아코디언 탱고박자, 짙은 섹스폰 소리, 그의 추억에 젖은 목소리와 함께 가슴아팠던 첫사랑의 달콤했던 실연을 애절하게 노래한다. 불혹을 훌쩍 넘길만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사랑의 실연의 추억은 그의 마음 한곳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남긴 달콤했던 첫사랑의 추억은 그의 노래를 낭만으로 가득 채운다. 다시 못 올 청춘,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옛 사랑의 아쉬움을 웬지 모를 야릿한 로맨틱한 감정에 빠져드는 낭만이라는 멋진 단어로 위안을 삼아보는 듯하다. 낭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어로 '로망(Roman)', 영어로는 '로맨스(Romance)' 를 뜻한다. 낭만은 그리하여 로맨틱한 연애와 많은 연관이 있다. 낭만스러운 사람을 떠올리면 아픈 연애의 실연에 아픔을 잘 아는 로맨티스트와 연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연애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고통으로 끝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보고 싶어한다. 다시 못 오는 상실로 웬지 한곳이 비어있는 가슴을 지니고 살아갈지연정... 왜 그럴까?

우리는 누구나 오이디푸스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렬한 사랑의 실패는 오이디푸스의 갈등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명약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번의 미친듯한 사랑을 해 보고픈 열망이 있을 수 있다. 오이디푸스의 갈등의 해소가 진짜 어른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시기의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통을 통해 첫 이성간의 관계를 접한다. 임신사실을 안 순간부터 자신보다 더 애뜻하게 자신을 돌보아주던 어머니와 자신을 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동일화를 갖고 살다가, 어머니와의 동일화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게된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태어나 처음으로 갖는 삼각관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존중한 관계는 아이가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준다. 또한 남을 사랑하는 법을 잘 습득하게 한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우상화될 때 아이는 오이디푸스 갈등에 빠지게된다.

아버지의 지나친 가부장적 사고 방식으로 결혼생활의 갈등을 겪은 토마스의 어머

니는 토마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자신의 갈등의 마음을 달랬다. 그 결과, 어머니와 한편이 된 토마스는 아버지와의 친숙한 관계를 하는것이 웬지 죄의식처럼 다가왔다. 토마스는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하려하면 웬지 모를 죄의식에 빠지곤 한다. 서른이 훌쩍 넘었어도 단 한 번도 열렬한 사랑에 빠져본적이 없고, 아직 성경험을 해본적도 없다. 결혼을 하려는 어머니의 성화에 몇 번의 선을 보았지만 연애의 감정도 통 생겨나지 않는다. 토마스는 아직 이렇게 오이디푸스 고착에 머물고 있다. 신디는 다섯 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무심에 항상 불만이 많았던 어머니는 신디의 교육에 집착했다. 서른 후반의 신디는 미국에서 그 힘든 박사과정을 끝내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높은 연봉을 받고있다. 하지만 연애가 힘들다.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그들 앞에만 서면 자신은 어린아이로 변한다. 특히 그들이 신체적으로 다가오면 그녀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신디는 자신의 신체에 자신이 없고 남자 친구의 터치에 자신에게 불안을 일으켰다.

필자는 토마스와 신디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고착은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의 하나인 효와 절정과 연관이 있고, 많은 한국인들을 오이디푸스 갈등의 운명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칼럼을 통해 낭만에 대하여, 오이디푸스 갈등의 쓸쓸한 사랑에 대해 계속하도록 한다.

TBO PLAY
보스톤권 케이블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반건조코다리, 삭힌홍어, 곱감,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
무청시래기, 안흥찐빵, 청국장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 기간 : 11월4일(금)~11월6일(일), 3일장

행사 문의 : 617.623.9620

<p>젓갈류</p> <p>명란젓, 청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멧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p> 	<p>반찬류</p> <p>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쫑, 방계무침등</p> 	<p>나물류</p> <p>취나물, 곤드레, 부지깽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p> 	<p>멸치류</p> <p>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멸치국물용 가루</p>	<p>떡종류</p> <p>강원도 오색감자떡, 모시잎송편, 모시잎개떡</p>
<p>건어물</p> <p>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전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반건조오징어</p> 	<p>해초류</p> <p>참미역, 다시마, 미역귀, 돌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 말린 톳</p> 	<p>생선류</p> <p>반건조코다리, 삭힌홍어회, 알배기 도루묵, 굴비</p> 	<p>기타</p> <p>잡쌀약과, 100% 표고버섯가루, 100% 다시마가루, 100% 도라지가루, 당뇨에 아주좋은 말린여주차, 대봉곶감</p> 	
<p>건강식품</p> <p>도라지 100% 진액, 겨우살이, 삼계탕용 재료, 황기, 당귀, 산수유, 오미자, 매실원액, 100% 산약마가루, 당뇨에 좋은 개똥쑥</p> 	<p>장류</p> <p>고추장, 된장, 막장, 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참기름, 들기름</p> 	<p>잡곡</p> <p>메밀묵가루, 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버섯더덕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p>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1)

‘40살’ 생일축하

1976년 8월 31일 미국에서 인덱스 펀드가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40년이 됩니다. 펀드가 처음 시작할 때 투자금 \$150 million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모인 투자금은 단 \$11 million이 모였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살아 남지 못할 것으로 많은 투자자는 예상했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주식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보글의 ‘바보 같은 작품(Bog)’ s Folly’ 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보글(Jack Bogle)은 벵가드(Vanguard) 설립자입니다. 이 당시 월스트리트는 주식 전문가에 의해서 주식이 선정되고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 펀드(S&P 500)는 주식시장에 나온 500개 회사에 무조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전문가 생각에 500개 회사 중에 쓰레기(Garbage) 같은 주식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를 평가해 보지도 않고 투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인덱스 펀드를 혹평한 이유가 나뉘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79년까지 75%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1982년에는 뮤추얼 펀드의 50%가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았지만, 그 후부터 뮤추

얼 펀드의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뮤추얼 펀드의 15~20% 만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다는 통계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인덱스 펀드가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학계에서는 많은 인정(Support)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샘얼슨(Paul Samuelson)은 ‘투자 전문가가 유망한 회사 주식을 선별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고 언급했습니다. 프린스턴의 경제학자인 매키엘(Burton Malkiel)은 ‘주식전문가 혹은 펀드 매니저가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을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그의 책(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힘과 함께 인덱스 펀드의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필자가 오래전부터 추천 한 ETF(Exchange Treaded Fund)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한 투자로 현재 투자자가 \$3 trillion을 투자했습니다. 5년 내로 두 배 이상인 \$7 trillion으로 성장할 것으로 한 기관(PricewaterhouseCoopers)에서 발표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처음 시작한 벵가드는 2008년 이후 자산이 3배로 증가하여 총자산 \$3.5 trillion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1 billion

이라고 합니다. 5일 지나면 \$5 billion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수익률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S&P 500의 수익률이 200% 이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투자금 3배로 증가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실제 돈으로 50만 불 투자가 150만 불로 불어나는 수익률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같은 시기에 50만 불이 80만 불만 불어나도 행복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80만 불이 아니라 150만 불이 되어야 하며 70만 불은 이유 없이 남에게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좋은 점을 일반 투자자는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뮤추얼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이 \$310 billion이며 인덱스 펀드로 투자된 돈이 \$409 billion이라고 월스트리트지 신문(Are Index Funds Eating the World?, WSJ, August 26, 2016) 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자산을 인덱스 펀드가 아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재정설계사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은 대형 금융회사를 맹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대형 금융회사인 웰스 파고(Wells Fargo)와 제이피몰건(J. P. Morgan)이 2년 전에야 ETF를 시작(Do Active Funds Have a Future?, WSJ, August 20, 2014)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TF를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ETF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벵가드와 같은 회사로 고객의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인덱스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개인 자산이나 우리 회사의 모든 고객의 자산도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투자자 본인이나 재정설계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만이 제대로 된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설계사가 “잘하고 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잠시 떠나 “내가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자산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대통령 선거와 주택정책

대통령 선거열풍에 나라가 온통 북세풍을 이루고 있다. 시민의 최대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면이 있다. 나의 생존권이다. 미국 정국은 현재 2가지의 다른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색에 입각해서, 현재와 과거를 선호하는 정당과 내일을 지향하는 정당이 충돌하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우건은 “다시 미국의 영광을 위해” 즉, 과거의 미국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기지에 있고 민주당 후보였던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슬로우건은 “변화”였다.

보수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기득권자들과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서 현재의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할 위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자신들이 영광스럽던 과

거로 돌아가길 원한다. 반대로 진보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대체적으로 현재 기득권이 없는 층의 사람들이다. 결국 정치는 가진자와 가지려는 자와의 세력 싸움인 것이다.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표현은 중산층과 상위층의 수입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위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이 현상은 주택 시장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보스톤 지역의 주택평균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올라가는 주택가격으로 중산층은 구매능력을 상실하고 도시외곽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낡은 40만불 주택을 건축업체가 다시 증축하면 70만불은 되어야 이익을 남긴다. 문제는 새로 증축된 70만불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의 소비자

는 40만불 주택구매능력자의 1/100수자로 줄어든다. 즉, 소수 상위층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의 70만불 주택구입 능력제한은 수입, 지출, 주택용자 규정, 주택용자 이자율 등 여러가지 환경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조건환경은 정책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다. 개개인에 따라서 믿는 해결책이 보수인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참정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해결방향이 너무나도 다른 두 정당의 후보들이 예년보다 더 격렬히 대결하는 이번 선거는, 이 두 정당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도 필사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tv... Since 2008
 200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한국방송 서비스인 티보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유사서비스에 주의 하세요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BO**
 티보플레이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실을 전하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월 →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TBO **PLAY**
 티보플레이

KBS MBC SBS tvN OCN net MBN Olive XTM Story On Style CH CGV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b)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ro)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달라스 (News Korea) 972-247-9111 샌안토니오 (코리아마켓) 210-445-1535 엘파소 (아리랑마켓) 209-756-1743
- 동부** 애틀란타 (SNC Tech LLC) 678-584-9514 오하이오 펜실 (주간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U Computer) 709-942-5822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55-9112 NY 교차로 (Kyocharo) 917-685-955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8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잡다한 역사 ②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와 음담패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공화당의 주요 의원들 상당수를 포함한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사실 트럼프의 지지그룹 사이에서 그의 인기 요인은 일베급의 ‘막말’ 이었다고 느껴질만큼, 대선 레이스 내내 특히 이민 문제와 여성에 관련한 ‘퀄리티 떨어지게시리’ 막말을 쏟아내던 그이다. 공개된 녹음 파일 속의 트럼프는 혐오스럽고 역겹지만,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이고도 새로운 트럼프의 모습은 아닐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화당 정치인들이 선거 한 달 전 소속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줄줄이 철회하는 데에는 각자의 중간 선거나 힘쓰자는 실리적인 판단도 있었겠지만, 공화당 내의 정체성 혼란과 내부 분열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음담패설 녹음 파일 덕분에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접어들 욕먹을 타이밍을 잡았을 뿐.

1884년 선거, 민주당 승리의 일등공신이 된 공화당 개혁파

현재의 선거판은 어딘지 1884년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남북전쟁 발발 직전 치러져 에이버리햄 링컨을 당선시킨 1860년 선거에서부터 1908년 윌리엄 태프트가 선출되기까지 무려 반세기 동안 치러진 열 세번의 선거동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1884년과 1892년 딱 두 번이었는데, 그 두 번의 선거에

서는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

1884년 선거 당시 공화당의 후보는 제임스 블레인이었다. 1884년 선거도 (2016년 선거보다야 훨씬 낫겠지만) 정책보다는 인신공격성 상호 비방이 난무했던 선거였다. 클리블랜드는 ‘흔외 자식’ 이 있다는 의혹과 함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나요?” 라는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으나 대권을 거머쥐었다. 상대당 후보인 블레인을 지지하는 개신교 목사가 민주당의 뿌리가 “Rum, Romanism, Rebellion” 에 있다고 비방함으로써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인 남부와 아이리시계 카톨릭 등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 그 반사 이익을 가져간 것은 클리블랜드였다. 또한 블레인의 부패를 문제삼고 민주당과 손잡았던 공화당 내의 개혁 세력(머그웬프 Mugwumps)의 반란 표 역시 팽팽했던 대선에서 클리블랜드의 당선에 공헌했다.

1880년 대선과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

1884년 이전에 치러진 1880년의 선거때도 공화당의 계파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었다. 당시 공화당에는 뉴욕주 상원 의원 로스코 콘클링이 이끄는 건장파 (Stalwart)와 메인주의 상원의원이었던 블레인을 중심으로 하는 잡종파 (Half Breeds)의 두 계파가 갈등하고 있었다. 1880년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인물은 잡종파에 가까운 제임스 가필드였다. 나름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선거 자금이 부족했던

가필드는 상대 계파의 수장인 콘클링의 도움이 필요했다. 콘클링은 가필드를 지원하면서 건장파 소속 체스터 아서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것과 건장파 인사들을 내각에 등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1880년의 선거는 매우 박빙이었고, 선거 결과에서도 가필드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콘클링의 지원이 없어도 가필드가 민주당의 윈필드 헐록에게 승리하는 힘들었을 상황. 당연히 콘클링이 이끄는 건장파의 공화당내 정치적 입지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필드가 대통령이 된 후 공직자 부패 청산을 추진하려니, 개혁의 걸림돌이었던 콘클링 계파의 인사들을 내각에 등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건장파가 반발하면서, 공화당의 최대 계파가 공화당 출신 대통령 가필드와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갈등은 대통령 암살이라는 비극을 가져왔다. 모교인 윌리엄스 대학에 방문하기 위해 열차 플랫폼에 들어서던 가필드 대통령은 한 사내에게 총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하게되는데, 그 총격범은 바로 건장파 소속의 찰스 토포라는 인물로 고위 공직을 얻지 못한 탓에 가필드에게 앙심을 품고 암살을 단행했다고 한다. 기도가 가필드 대통령을 저격한 후 외쳤던 말은 희비극이다. “가필드가 죽었으니 이제 다음 대통령은 아서다.” 공화당-건장파가 대통령이었던 기도가 고위 공무원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부통령

으로 아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도왔을’ 뿐, 대통령 암살범으로 끝났다. 그래도 가필드가 추진하려던 개혁은 아서가 이어갔다.

우드로 윌슨의 어부지리, 1912년 선거

공화당 내부 분열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선거 판도를 바꾼 것은 1912년 대선이지 싶다. 1901년,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당했다. 개혁파로 당내에서는 아웃사이더였던 시오도어 루즈벨트가 매킨리의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루즈벨트는 1904년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어쨌거나 재임기간 루즈벨트는 19세기 후반의 고질적인 부패와 독점 문제를 개혁하려던 움직임인 혁신주의 (Progressivism)를 정치에 도입했던 인물이다. 루즈벨트의 후임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였는데, 혁신주의자들이나 전임 루즈벨트 대통령은 태프트가 혁신주의의 노선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면서 태프트를 지원했다. 그러나 태프트 대통령의 관세, 자연 보호-개발 정책 등이 전임 루즈벨트와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갈등하게 되었다. 1910년, 루즈벨트는 또 한번 대권도전의사를 펼쳤으나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이는 현직이었던 태프트였다. 루즈벨트는 공화당 내의 지지자들과 함께 혁신당 (Progressive Party)을 창당했고 1912년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루즈벨트의 분당 덕분에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은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계속)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 (Franchise) v. 라이선싱 (Licensing) v. 딜러십 (Dealerships)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매직 존슨은 NBA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유명한 농구선수입니다. 하지만 매직존슨을 농구선수로만 알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매직존슨은 투자회사인 “매직존슨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가장 성공한 흑인 비즈니스맨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약 30개의 “버거킹”, 12개 이상의 “24-hr 피트니스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직존슨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꽤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투자의 귀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직존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법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와 딜러십 혹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업 형태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주(Franchisor)와 가맹점 (Franchisee)이 관여되며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회사의 상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권을 가맹점에게 부여하고, 가맹점의 사업체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

여해야 하며, 가맹점은 그 대가로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가맹비 (Franchise Fee)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연방 규정에서 가맹비는 \$500 이상이어야 가맹비로 인정되며 제품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형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던킨 도너츠입니다.

라이선싱을 받는 경우(Licensing) 혹은 딜러십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Dealerships)에는 프랜차이즈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두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규정되지 않으며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싱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자신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 사용권을 사업자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니모의 캐릭터 사용권을 인형 만드는 회사에게 준 경우, 디즈니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만 인형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캐릭터에 대한 비용은 가맹비 형태가 아니라 일시불 혹은 판매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

의 식당에 대해 트레이드 마크만 상대가 쓰게 하고 음식은 무엇을 파는지 혹은 경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라이선싱을 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딜러십을 프랜차이즈와 헷갈려하는 경우는 비교적 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딜러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딜러의 경우, 독립된 회사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는 있지만 별도의 회사 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Mini)의 뉴저지 딜러십 이름은 “Prestige Mini”입니다. 뉴욕은 “Mini of Manhattan”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사업체입니다. 이 딜러들은 미니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대중에게 판매를 하며 미니 자동차 회사는 딜러 회사의 경영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품과 미니라는 상표만 제공합니다. 비슷한 예로 물에 가판대를 놓고 판매하는 Ghirardelli초콜렛의 경우도 해당 초콜렛을 회사에서 받아 대중에게 판매하고

초콜렛 이름과 상표를 쓰지만 가판대 자체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딜러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엄격한 프랜차이즈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라이선싱을 주는 형태나 딜러십의 형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어떻게 실질적인 운영관계가 프랜차이즈라면 프랜차이즈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고자 하며, 그 사업이 프랜차이즈인지 라이선싱 혹은 딜러십인지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분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 | | |
|---|--|
| 보스톤 서쪽 투자상가 건물 매매가격 \$1.2M |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
| 워터아운/월담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
|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
|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
|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
|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
|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
|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
|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
|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
|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
|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
|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BOSTON Edu Boston Education World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외 가능
오전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6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마감일: 11월 11일)

- 기간: 11월 11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감독,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8:00-9:30	단어 test	단어 test
9: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Critical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BAT Writing Class
4:00-6:00	TOEFL Class	BAT 2 Subject Class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